Weekly 공감

2010.09.22/29 No.78
gonggam.korea.kr

G20 SEOUL SUMMIT 2010



미리 보는 4대강 36景 p23~47

중점기획 4대강변 농경지, 옥토로 거듭난다 p14~21

동해안 688km 탐방로 '해파랑길' 열린다 p58~59

백제의 부활 '세계대백제전' 100배 즐기기 p42~47

수량이 풍부했던 1930년대 나주 영산포



4대강살리기는 강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금강세종시 구간

강에 퇴적토가 쌓이지 않았던 1930년대만 해도
내륙 깊숙이 배가 왕래할 정도로 수량이 풍부했습니다
4대강살리기는 퇴적토를 청소하여 우리 강을 치료하고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여 생명과 희망이 돌아오게 하는
우리강 제 모습 찾기입니다

강을 치료합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토를 걷어내어
홍수와 가뭄으로 신음하던
강을 치료하게 됩니다

생명과 희망을 돌아오게 합니다

넉넉해진 강물로 인해 조류와 물고기등
주변 생태계가 풍요로워집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주변환경과 자연을 생각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공법을
사용합니다

4대강살리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수변 생태공간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난해 4대강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다소 부족해 우려를 낳았던 4대강 관련 생태하천 조성 및 지역 특성 반영 노력이 10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4대강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가시화된다는 것이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자연경관과 생태하천, 습지, 갈대 군락지 등을 중심으로 수변 생태공간을 확장함과 동시에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경관거점을 조성해 지역명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4대강은 한층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하천 특성을 살리는 수변 생태공간 조성과 주변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경관거점 조성이다. 4대강은 그동안 온전한 자연으로서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변천과 함께해왔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변형을 거듭해왔다. 이 같은 인간 중심의 강 이용은 오염물질 배출 등의 악재를 만나 강을 자연 그대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수변 생태공간 조성계획은 바로 이러한 고민을 해소한 답안이다. 본격적인 하천 이용을 생태계 구성요소로 받아들이면서 4대강이 강 본연의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 데 필요한 생태적 조건을 회복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홍수·가뭄 예방과 수자원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사람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은 산업화 시대 이전의 4대강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단순한 조경사업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하천-둔치-제방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넘어 주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진정성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할 때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없는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거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태환경의 보전 및 재생'과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공간 만들기'. 상반돼 보이지만 절실한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4대강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물론 국토의 품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를 통해 4대강은 환경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반영된 진일보한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날 것이다.


조영철 기자

이를 위해선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하천과 지역의 고유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과 하천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전문가, 환경 및 역사·문화 관련 단체 등의 의견 수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G

Weekly
2010.09.22 / 09.29
No.78(통권 179호)

Contents



표지 이야기

4대강마다 고유의 빛깔을 지닌
수변 생태경관이 만들어진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4대강 36景'이다.
사진은 8개의 경관거점이 들어설
'호남의 젖줄' 영산강.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9.22 / 09.2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인간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4대강 36景'

강마다 고유의 빛깔을 지닌 수변 생태경관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서도 각 지역과 강의 특성을 반영한 서른여섯 곳은
지역명소 '36경(景)'으로 특화됩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강변은 4대강살리기 사업 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사람들의 건강한 삶과 예술이 흐르는 공간,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행복충전 공간. 달라지고 있는 4대강의 수변 생태경관이
보여줄 미래 청사진입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77호(9월 15일자) 기획특집 '달라지는 4대강'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 기대합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관계 모색 방안을 잘 봤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와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아온 르포 기사도 좋았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함께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후대에 기록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_강창규

"금강 현장 르포와 이용우 부여군수 인터뷰 기사를 잘 봤습니다. 특히 백마강 뱃길 복원과 함께 농경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것이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이라는 부여군수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충남 부여와 공주가 함께 손잡고 '대충청방문의 해'를 기념하는 축제인 '2010 세계대백제전'을 9월 17일부터 약 한 달간 펼치고 있습니다.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랍니다."_홍경석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수해 걱정 끝나길"

"올여름은 무더위와 마구잡이로 퍼부은 비 때문에 여기저기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침수 피해 지역인 경기 여주군은 멀쩡했다니 신기합니다. 여주 군민들의 말처럼 그게 모두 4대강살리기 사업 덕분이라면 앞으로 희망을 걸어도 좋을 듯합니다. 더 이상 수재민이 생기지 않는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요!^^"_가인

77호 '이 사람 / 정태준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차장' 인터뷰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2010 명장으로 선정된 정태준 차장의 기사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추석에는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열차는 이러한 대이동의 견인차고요. 친환경 운송수단의 대명사인 철도 분야에서도 드디어 명장이 탄생했다는 사실은 우리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반갑기 그지없네요. 알찬 내용 좋았습니다."_casj007

77호 '이 사람 / 사할린동포 보금자리 '고향마을' 지킴이 정천수 소장' 기사를 읽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과 함께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학과 러시아어를 공부한 정천수 소장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네요. 외국으로의 귀화를 거부한 채 온갖 불편과 차별을 감내하며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동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족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그 정체성은 무엇인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사였습니다."_jkkang313


"태풍 피해 없었던 것, 한강살리기 사업 덕분"


"추석 귀성, 안전장치 갖춘 열차 이용하세요"

알립니다

녹색성장 알리는 환경사진 찾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2주년을 맞이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 아이디어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환경과 인간의 조화된 모습 또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작품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1인당 3점 이내)
접수 기간 | 10월 5일까지
응모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인적사항 및 제출 작품 사항을 기재한 후 디지털 카메라 혹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사진(JPG 파일 5MB 이하) 파일 업로드
수상자 발표 | 10월 20일 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명 포함한 입상자 6명에게 상장 및 상금 수여 예정
환경부 ☎ 02-2110-6644 me.go.kr

음식물쓰레기 없는 깨끗한 나라!

일상 속 녹색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를 공모한다. 음식점, 가정, 학교, 휴게소, 군부대, 병원·장례식장 등 9개 부문의 실천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분야까지 총 10개 부문을 모집한다.

참가 대상 |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가능)
접수 기간 | 11월 1~12일
응모 방법 | 공모 양식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e메일(ecokeco@naver.com)이나 우편으로 제출. 지방자치단체 정책 분야는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 내용과 정책 시행에 따른 사업효과도 제출해야 함
접수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2-22 신보빌딩 2층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사례 공모전 사무국
수상자 발표 | 11월 말 예정.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시상 내용 |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상금 3백만원 및 환경부 장관상 수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 ☎ 032-590-4251 keco.or.kr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9
10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0월 6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3. '의무경찰'을 줄여서 이렇게 부르죠.
4. 가톨릭이나 기독교 교회에서 부르는 신성한 노래.
6.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 풍수OO.
8.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여인의 신비스러운 미소로 유명하죠.
10. 두 선수가 매트 위에서 맨손으로 맞붙어 승부를 겨루는 격투기.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이 있죠.

세 로

1. 농사를 짓는 땅. 농지.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변 OOO가 다시 태어난다."
2.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날에 부모와 형제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죠.
5. 고려시대의 속요. 이별의 정한을 애틋하게 노래한 서정시로 〈악장가사〉에 실려 있죠.
7. 기존의 낡고 불편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을 증축, 개축해 경제효과를 높이는 것. "4대강변 농경지를 OOOO하여 영농효과를 높인다."
9.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매우 훌륭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말하는 것. "그 할머니는 자식 OO을 늘어놓았다."

〈Weekly 공감〉 76호(9월 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지천 4 고구려 5 치료 6 비엔날레 9 소쿠리
세로 2 천고마비 3 배려 5 치레 7 엔트리 8 청소

〈Weekly 공감〉 76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창수·대구 수성구 수성4가
박현희·부산 금정구 서3동
오정주·서울 노원구 상계1동
이승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차인실·충남 당진군 석포리

"한국 고궁의 매력 속으로 풍~"

지진희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일본에서 왕을 칭하는 존칭의 의미인 '오사마'로 불리며 한류 스타로 등극한 배우 지진희(39). 드라마 〈대장금〉, 〈동이〉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그는 한국의 고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평소 사진 찍기를 즐겨 고궁의 촬영 포인트를 찾는 데도 열심이다. 고궁의 매력에 푹 빠진 그를 만났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소감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고궁을 좋아하는데,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 자격으로 고궁을 홍보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 기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궁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명소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궁의 어떤 점에 끌리나요.

현재 화보 촬영을 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관광객에게 꼭 고궁을 들러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드라마에 나온 장소들이나 사진 속의 배경을 찾아가 같은 위치에서 찍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촬영 포인트가 너무 좋아서 누가 찍어도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서 아쉬운 점은.

우리의 궁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지금보다 좀 더 많이 활용하면 좋겠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은 드라마를 보고 지방에 있는 촬영세트장까지 먼 길을 달려오는 것도 서슴지 않거든요. 서울에 있는 고궁이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고궁 홍보가 자연스레 이뤄질 겁니다.



일러스트 · 문지희

추천할 만한 관광지가 있다면요.

최근 도보관광 코스가 많이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낙동강 도보관광 코스나 제주 올레길, 서울 자전거도로를 추천하고 싶어요. 자갈해변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일품인 보길도, 혼자 사색하며 걷기 좋은 제주도의 우도도 좋습니다. 꽁치를 통으로 구워 넣은 꽁치김밥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글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귀숙 부산 북구 용수로

1. '한러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동반 관계 강화' 기사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현실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야 함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광활한 영토와 많은 자원, 무한한 개발 가능성 등을 지닌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 관계를 맺으면 서로의 발전과 상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낙동강 하류 현장에서 진행되는 보 공사가 저지대가 많고 수질오염이 심해 걱정스럽지만 보가 완료되면 홍수와 가뭄 피해를 막아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최근에도 태풍으로 수해를 입기도 했지만 보 공사가 완료되면 이런 피해를 막아주고 옛 가야지역의 문화와 역사까지 재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3.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홍보비와 기자재 구입비, 직원 연수비로 무분별하게 지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데 이를 심층 취재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주세요.

김영선 강원 정선군 고한읍

1. 정태준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차장의 인터뷰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입사해 꾸준히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 명장의 반열에 오르고 지금도 쉼 없는 자기계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분의 삶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2.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태풍 피해를 면했다는 여주 군민들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여주군은 침수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니까요. 부디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여주 군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수해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3. 가을에 가족과 주말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곳을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29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미리 보는 4대강 36景'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산림청은 자연체험 수요에 부응하고 산림생태계 훼손을 완화하기 위해
지리산둘레길, 금강소나무숲길을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 둘레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16개읍면 80여개의
마을을 환형으로 연결한 트레킹숲길입니다.
지리산권역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마을길 등을 복원하여
총 300km 예정구간 중 71km를 우선 개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trail.or.kr ● 문의: 063)635-0850



금강소나무숲길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불영계곡, 왕피천, 통고산 등 울진지역의 다양한
산림자원과 역사 · 문화자원을 선형으로 조성한 트레킹숲길입니다.
총 71km 예정구간 중 13km를 올해 시범개통할 예정이며, 산림자원보호를
위해 1일 탐방인원을 제한하는 예약제 및 가이드제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www.uljintrail.or.kr ● 문의: 070)7718-2999

산림청



서울 G20 정상회의 온라인 홍보를 맡게 될 청사초롱 e-리포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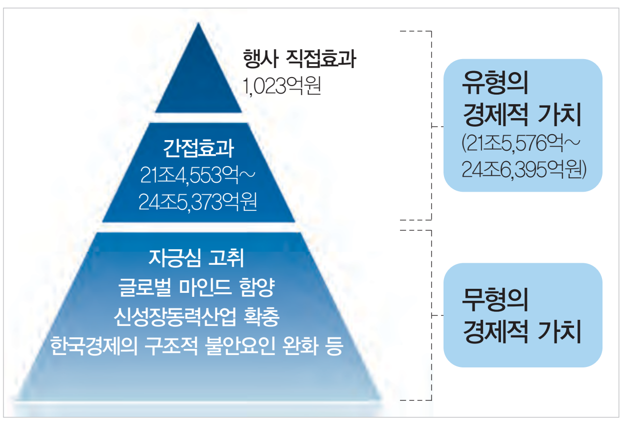
동아DB

G20 정상회의 경제효과 24조원

삼성경제연구소 "정상회의 성공 개최로 국가 홍보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감소 기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는 최대 24조6천3백95억원이며, '서울 컨센서스'가 이뤄질 경우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로 국가 홍보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이미지 제고 등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의 경제적 효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는 21조~24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보고서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는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이에 따르는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21조5천5백76억~24조6천3백95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행사 자체의 직접효과 1천23억원 ▲간접효과 21조4천5백53억~24조5천3백73억원으로 추정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정상회의로 정상급 인사, 공식 수행인원 등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개 회원국 외에 10여 개국 정상이 추가로 초대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10개 이상의 국제기구 수장에다 참가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대표단, 취재단, 경호인력 등이 함께 방한할 예정이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산 정상회의

의 경우 26개국 정상을 포함해 7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에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을 전제로 행사 직접효과는 ▲G20 정상회의 외국인 참가자의 소비지출 4백90억원 ▲이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5백33억원으로 계산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간접효과는 ▲기업 홍보 1조7백38억~1조2천3백90억원 ▲수출 증대 18조9천5백87억~21조8천7백55억원 ▲해외자금 조달비용 절감 1조4천2백28억원으로 산출했다. 성공 개최의 간접효과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해외의 긍정적 평가가 각각 65퍼센트, 75퍼센트인 경우를 구분해 산출한 수치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 21조5천5백76억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2009년 기준) 2퍼센트 포인트에 해당되며 국내 일자리 11만2천 개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창출된 일자리 28만3천 개의 40퍼센트 수준이다.

경제적 효과는 쏘나타 승용차 1백만 대 수출과 맞먹어

또 현대 쏘나타 기준으로 자동차 1백만 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백65척(1대당 1억1천만 달러) 수출과 맞먹으며, 글로벌 전자업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2009년 영업이익의 2배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현안 해결과 G20 정상회의 상설화를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정한 세계 경제질서를 '서울 컨센서스'의 핵심 어젠다로 제시할 것"을 제언했다.

1980~2007년 세계경제를 지배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빈부격차 확대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위기에 봉착했으며,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할 새 패러다임이 서울 컨센서스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제3세계에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확산시키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을 통한 공정한 자원배분과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서울 컨센서스가 한국 주도로 채택될 경우 세계 경제질서와 한국 경제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수석연구원은 "국민의 자긍심 고취, 글로벌 마인드 함양, 기업의 신성장동력산업 확충,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요인 완화 등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는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능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G20 정상회의 협찬 차량 총 2백40여 대

각국 정상용 의전차량 '에쿠스 리무진' 선정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사용할 의전용 차량 및 경호용 차량 협찬사로 현대·기아자동차, BMW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크라이슬러코리아 등 5개사를 선정했다고 9월 12일 발표했다.

정상용 의전차량으로는 국내 양산차 중 최고급형인 현대 에쿠스 리무진(사진)이 사용될 예정이며, 외산차인 BMW 750Li, 아우디 A8, 크라이슬러 300C는 정상 배우자 및 국제기구 대표용 의전차량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협찬되는 차량은 총 2백40여 대에 달한다.



中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첫 중간회의

"일회성 아닌 G20 신뢰성 높이고자 하는 것"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의 첫 중간회의가 9월 14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G20 비즈니스 서밋에서 채택될 보고서를 점검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11월 10, 11일, G20 정상회의는 11월 11, 12일에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의제와 이들 의제를 다시 3개의 소주제로 나눈 총 12개 소주제별 컨비너(회의 주재자) 측 관계자와 국내외 CEO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조직위원회의 오영호 집행위원장은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은 하루 만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수차례 사전회의를 통해 CEO들이 공동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정상회의와 연결해 G20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탈출 과정에서도 정부 조치 이후엔 언제나 민간 자생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열린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와 금융규제를 다루는 정부 간 협의 프로세스 중심으로 세부 논의가 진행돼왔으나 서울 G20 정상회의부터는 비즈니스 서밋이 추가돼 향후 정상회의에서 정례화가 기대되고 있다.

“민주화 가치 지켜 선진국 도약 완성”

17개 대학 850여 명 회원 ‘한국대학생포럼’ 비전 선포식

서울·경기지역 17개 대학에서 활동하는 ‘보수 성향 대학생 모임’인 한국대학생포럼이 9월 8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참가한 2백여 명의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 민주화의 가치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동시에 꿈꿀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논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숙함을 논하겠습니다.”

9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한국대학생포럼이 밝힌 당찬 포부다. 한국대학생포럼(Korean University Students’ Forum)은 변종국(25·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년) 회장과 친구들 몇몇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3월 시작한 이른바 ‘보수 성향 대학생 모임’이다. 대학가 카페에서 조촐하게 발족한 이 모임은 1년 반이 흐른 이날 비전 선포식 때는 서울대, 연세대, 인하대 등 서울·경기지역 17개 대학에 지부를 두고 회원 8백5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했다.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선택’ 세미나 개최

이날 한국대학생포럼이 선포한 비전을 요약하면 ‘지속&완성(Conserve&Complete)’이다.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자



한국대학생포럼

9월 8일 한국대학생포럼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자유시장주의, 민주화의 가치 등을 지키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유시장주의, 민주화의 가치를 지키고(Conserve) 이런 가치들을 공고히 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해 완전한 대한민국을 이룩하자(Complete)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 포럼은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촛불정국 등으로 우리 사회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을 때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출발했다. 변 회장이 알음알음으로 만난 대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 댓글 문화, 건국이념과 역사인식 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부 방식은 강연회를 열어 보수의 가치를 배우거나 학술 컨퍼런스를 열어 보수와 진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안보와 미래' '경제학 스터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대학생 토론회' '무상급식에 대한 대학생 토론회' 등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인터넷신문사 〈투데이타임스〉를 창간해 현재 50여 명의 대학생 기자들이 취재 기사건 칼럼이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장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에는 '대학생 6·25전쟁 60주년 기념주간' 행사를 치렀다. 행사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백선엽 장군 강연회, 대학생 6·25전쟁 학술 컨퍼런스 및 칼럼과 감상문 공모전, 강원 철원군과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의 안보캠프 활동 등 다양하게 기획됐다.

포럼은 그동안 민감한 이슈에도 의견을 내놨다. 지난 4월 말에는 '북한 인권에 관해 침묵하지 말자'는 북한 인권 결의문, 5월 말에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천안함 피격사건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보수가 극복 못했던 부족한 2퍼센트 만족시키겠다"

그럼에도 회원들이 대학생인 만큼 포럼의 '본업'은 보수의 가치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9월부터 올 연말까지 거의 매주 1회 한국 현대사를 건국기, 성장기, 민주화기로 나눠 논하는 세미나를 10차례 연다. 1차로 9월 15일에는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헌법학자 유진오' '성장의 젖줄, 경부고속도로' '근대화를 위한 사투,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끝으로 제 10차 세미나에서는 '화해와 포용의 정치'를 논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향후 인권, 복지, 통일 그리고 화해의 정치까지 논할 계획이다. 포럼의 비전 선언문은 "그동안 보수가 극복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부족한 2퍼센트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G 글 · 최은숙 기자

한국대학생포럼 www.univforum.kr

변종국 한국대학생포럼 회장

"보수·진보 차이, 기성세대 수용 여부에 달려"


조영철 기자

"제가 보수여서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 가치, 국가 이익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주장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저를 보수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변종국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무엇보다 기성세대를 수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즉 보수가 기성세대 담론과 성과를 수용하는 데 비해 진보는 이를 배척하고 개혁의 속도를 높인다는 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이 보수적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배운 '밥상머리 교육' 때문이라고 믿는다.

"처음부터 아버지 편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적 신문을 읽는 아버지 앞에 제가 읽는 진보적 신문을 펼쳐 보이며 기성세대의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대화를 피하지 않고 저를 설득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에 성공한 아버지의 삶은 그 자체로 '노력하면 된다'는 기성세대의 성과를 입증한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변 회장은 그동안 회원들과 함께 장학금과 용돈을 털어 한국대학생포럼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많이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가 창간한 대학생 인터넷신문 〈투데이타임스〉에는 심지어 친일파 자식이니 군대도 안 다녀왔느니 하는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넘긴다고 한다.

"저는 친일파의 자식도 아니고, 공군을 만기 제대한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준비하고, 최근 벌어진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특혜 사건에 씁쓸해하는 평범한 대학생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떳떳하게 보수의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획한 행사 중에서 특히 '21개 참전국에 감사 편지 액자 보내기'를 위해 발로 뛰며 큰 감동의 순간을 맛봤다고 한다.

"우리 포럼 회원들이 6월에 방한한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호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호텔로 들어서는 그들에게 그 나라 글로 감사 편지를 적은 액자를 전해주니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또 참전국 대사관마다 액자를 보내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감사의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터키 참전용사 모임은 우리에게 참전용사 깃발을 전해주기도 했고요."

그는 포럼의 문을 진보 인사들에게도 활짝 열려고 한다. 얼마 전 역사 세미나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세미나에서 치열한 토론을 벌인 후 가진 술자리에서 어느 교사는 "포럼을 안 좋게 생각했는데, 같이 얘기해보니 잘됐으면 좋겠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변 회장은 대학 졸업 후에는 회장직의 바통을 후배에게 물려줄 예정이다. 대신 졸업생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남아서 힘이 닿는 데까지 후배들을 도울 생각이다.


1


2

책과 함께한 우리들의 초상화

'손 안 愛書 사진 공모전'… 회사원·주부·학생 등 7백5점 출품

아직 글을 떼지 못한 아이에게 책은 장난감이다. 두 팔 높이 책더미를 치켜올리고 바라보는 아이의 표정이 신기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환하다. 이 사진처럼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책과 반갑게 만나던 추억이 살아 있을 것이다.

부산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의 어느 헌책방 겸 카페에서 찰나의 순간을 잡은 이 사진은 최근 '2010 손 안 애서(愛書)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아마추어 최해민(29·부산 중구 중앙동) 씨의 작품이다. 최 씨는 "학생 때부터 헌책을 사러 다니던 책방골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서 끌리는 곳"이라며 "친구와 함께한 책방골목 나들이길에 셔터를 눌렀다"고 말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보문고가 후원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점을 비롯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22점 등 모두 30점이 뽑혔다. 사진들은 한결같이 극진한 책 사랑을 담고 있다.

한여름 호숫가 나무그늘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수녀, 서울 문래동 철강자재 판매점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는 아저씨, 노안으로 책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할아버지, 도서관의 마룻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여학생들…. 수상작들은 잠시나마 시간이 멎은 듯 책 속에 파묻힌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초상화이자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공모전에는 회사원, 주부, 학생, 교사, 무직자 등 모두 3백30명이 7백5점을 출품했다. 수상작은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9월 30일까지, 대구컨벤션센터에서 9월 29~30일 전시되며 이후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서도 순회 전시될 예정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2010 손 안 애서(愛書) 사진 공모전 수상작 www.read-kpec.or.kr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진흥팀 ☎ 02-2669-0745





1 장려상 천지은 〈나란히 나란히~♬〉
2 최우수상 최쌍우 〈수녀님의 독서〉
3 대상 최해민 〈빠져들다〉
4 우수상 전재원 〈생활 속의 독서〉
5 우수상 곽철한 〈함께 봐요!〉

손안애서 愛書 2010 사진 공모전





4대강살리기가 준 선물 '농경지 리모델링'

준설토 활용해 저지대 농경지 침수 예방·농가소득 향상 기여

하천 수위보다 낮아 비만 오면 물에 잠기던 농경지 걱정은 이제 끝이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퍼올린 준설토를 이용해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는 농경지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의 터전을 지키는 친환경 영농환경 개선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은 4대강살리기가 준 덤이다.

4대강살리기와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4대강살리기 연계사업인 농경지 리모델링이 농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농경지를 정비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을 위해 단 2년의 시간만 견디면 농민들은 그간 상상만 해왔던 농경지를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꿈에 그리는 농경지는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어서 오래전부터 하천 주변에 많은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지형 특성상 저지대와 습지대가 많고 하천 주변의 논은 상습 침수 우려가 커 농민들은 고질적인 침수 피해에 시달려왔다. 특히 여름철엔 비가 많이 내리고, 봄가을엔 가무는 등 기후적 요인도 농경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큰 강으로 토사가 흘러들어 하천 인근 농경지의 표고가 하천 바닥 표고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강 수위보다 낮은 농경지가 침수되는 현상이 되풀이되다 보면 자연히 농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저지대 농경지를 돋워 최근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인근 1백49개 지구에 총사업비 1조2천억원 투자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한 다량의 하천 준설토는 농경지 리모델링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준설토를 이용해 지반을 높이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가능해지고 여기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치 및 농지정리 등 단계별 리모델링이 이뤄지면 농경지가 새롭게 탈바꿈되는 것이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로 저지대 농경지를 메우면 침수 피해를 영구적으로 막을 수 있다. 사진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만봉천 합류부 주변의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농경지 리모델링은 표토를 걷어내고(사진 왼쪽) 준설토로 성토를 끝내면 일단락된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용두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그간 농경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수개선 사업과 경지정리 사업 등 농경지 관리 관련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4대강살리기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 리모델링 관련 조사와 설계에 착수했고, 지난 1월 4대강살리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농경지 리모델링은 4대강살리기 공사 구간 인근 1백49개 지구를 대상으로 모두 7천5백71만5천 제곱미터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만 1조2천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26퍼센트. 4대강살리기 지구별로 살펴보면 낙동강 1백22개 지구, 한강 2개 지구, 금강 19개 지구, 영산강 6개 지구 중 98개 지구에 5천6백71만6천 세제곱미터의 준설토가 반입됐다.

리모델링 사업지구는 하천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나 용수로, 배수로, 농로 체계에 지장이 없어 사업 추진 장애요인이 적은 지역 등 선정 기준에 따라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가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벼농사 위주에서 논밭 겸용·시설원예 등 농지 용도 다양

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강별로 사업지구 수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4대강 각각의 특수성과 준설토의 양에 기인한 것”이라며 “낙동강의 경우 4대강 중 가장 길고 넓기 때문에 준설토 양도 많아 더 많은 농민에게 농경지 리모델링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 농민들로부터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로 추가 배정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얻는 유·무형의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먼저 상습 침수 피해 농경지에 대한 영구적인 방지가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상습 침수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배수개선 사업을 해왔지만 아직도 대상 면적 중 38퍼센트의 농경지가 정비되지 못한 실정이다.

농민들은 그동안 농지 관리의 혜택을 받지 못해온 하천 인근 농경지들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하천 주변 토양은 모래질 많아 논밭 이용에 유리

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 송소윤 계장은 “준설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지정이 가능해질 경우 준설 위치나 민원 발생, 침수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단순히 침수지역의 지반을 높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물을 최신시설로 교체해 영농환경 전반을 개선해준다. 이로써 기존 벼농사 위주의 영농환경에서 벗어나 논밭 겸용, 시설원예 등 농지 용도가 다양해진다.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지는 대부분 하천 유역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비교적 침수에 내성이 있는 벼농사를 지어왔다. 하지만 토양적 측면에서 보면 하천 주변 토양은 모래질이 많아 논보다 밭으로 이용하기에 유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하천 주변 농경지 입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이 개선되면 논 중심이 아닌 논·밭농사 돌려짓기가 가능하고 첨단농업 및 대규모 영농단지로의 개발도 가능해진다.

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4대강의 준설토 활용으로 강은 수심이 깊어지고 땅은 높아져서 좋으며 농민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수 있어 1석3조”라며 “앞으로 하천 유역 농경지들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농지 가치도 상승해 효자 땅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1



2

3단계 준설토 오염 조사 뒤 리모델링

한강·금강·영산강 사업지구, 올해 말까지 준설토 반입 완료

농경지 리모델링은 4대강살리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4대강살리기의 하천 정비공사로 발생하는 준설토가 저지대 침수지역 농경지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매년 물난리로 고생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농경지 리모델링의 현황과 단계별 과정에 대해 살폈다.

4대강살리기로 발생하는 준설토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서 효자 역할을 한다. 4대강살리기에서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하는 공사는 강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으로, 약 5억2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가 발생한다. 이 중 골재로 활용할 수 있는 준설토는 1억3천 세제곱미터 정도. 나머지 3억9천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는 사토(死土)화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하천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준설토를 '하천 인근 저지대 침수지역 농경지를 메우는 데 쓰자'는 농경지 리모델링 방안이 제시되면서 2억2천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농경지로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지구는 1백49개 지구로 각 강의 특성과 준설토의 양에 따라 강별로 지구 수에 차이가 있다. 현재 98개 지구에 준설토 전체 반입량의 26퍼센트가 됐다.

한강, 금강, 영산강 사업지구의 경우 올해 말까지 준설토 반입을 완료하고 준설토의 양이 특히 많은 낙동강 지역은 올해 말까지 60퍼센트 이상 준설토를 반입해 내년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지구 선정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지를 조사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 선정에 따른 대표적인 기준은 4대강의 제방에 인접한 저지대 농경지로 준설토 처리량이 많고 토지 소유주가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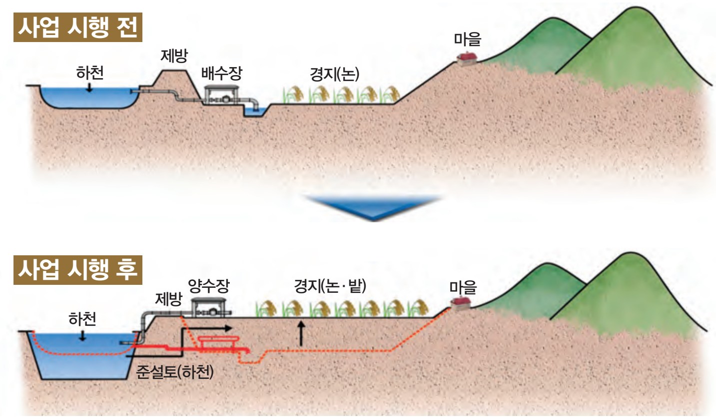
특히 준설작업이 진행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5킬로미터 이내 땅으로 한정해 4대강살리기 준설 현장과 대상 농경지가 멀어 토사 운반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했다.

카드뮴·수은·납 등 21개 항목 철저히 조사

이 밖에도 제방 보강과 침수 해소로 사업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집단화된 대규모 농경지여서 하천 제방 높이까지 성토하더라도 용수로, 배수로, 농로 체계 등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지구 선정과 함께 가장 중요했던 농경지 리모델링 준비 단계는 준설토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4대강지원팀 김호준 과장은 "하천에서 발생된 준설토는 총 3단계에 걸쳐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한다"며 "지난해 4대강 내 1백42개 지점에 대해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카드뮴, 수은, 납 등 21개 항목이 기준치 미만으로 밝


3



농경지 리모델링 단계별 사진. 4대강살리기 사업 현장에서
하상 준설을 한 후(사진 1) 준설토를 적재장에 모아둔다(사진 2).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대상 농경지에 준설토를 옮겨다 성토한다(사진 3).

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 환경영향 조사의 일환으로 하천 바닥 2~5킬로미터마다 1개 지점을 분기별로 조사했고, 마지막으로 성토가 완료된 농경지의 준설토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게 된다"면서 "현재까지 단 한 군데에서도 오염된 준설토가 반입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검은색을 띠는 준설토는 미세 점토질 함유"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박봉균 자연환경팀장은 "검은색을 띠는 준설토는 미세 점토질이 함유된 것"이라며 "강바닥 아래 퇴적토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 혐기성 세균이 활발히 활동해 흙이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과정은 크게 준설토를 농지에 성토하는 작업과 농지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지를 조성하는 경지정리 작업으로 나뉜다. 먼저 농지에 성토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지로 선정된 땅의 표토를 거둬 따로 쌓아두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표토를 거두는 이유는 준설토를 성토한 다음 다시 표토를 덮어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작물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유효 토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공사 농경지정비팀 유승철 차장은 "일반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할 때 농지의 유효 토층 깊이 기준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경지 리모델링의 표토 50센티미터 깊이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토를 걷어낸 뒤엔 준설토를 농경지에 채워넣는 성토작업이 진행된다. 성토 높이는 평균 2.6미터지만 지형에 따라 최대 10미터 가까이 되는 곳도 많다. 성토작업이 끝나면 따로 보관했던 기존 표토를 50센티미터 이상 고루 펴 덮는다. 다음으로 농경지에 필요한 용수로와 배수로 및 농로를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다시 내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을 마치면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농민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침수 피해를 덜고 영농환경이 개선된 농경지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총 2년에 걸쳐 진행된다.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이 된 농민은 휴경하는 기간을 감안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보상 내용은 경작자가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입증한 금액만큼 지급하며 입증을 못하면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총수입액으로 보상을 받는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한다.

농경지 리모델링 완료 후 철저한 애프터서비스 제공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제공된다. 객토에 따른 농경지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성토 지역에 대한 토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에 적합한 고소득 작목, 재배 여건 분석 등 기본 정보를 조사해 미래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마련을 돕는다. 특히 낙동강이 흐르는 경남북 지역에서 리모델링 농경지 두 곳을 꼽아 새로운 농경지 형태에 맞는 연구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민의 걱정을 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준다. 농경지 리모델링의 모든 시공을 지역 건설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지구별로 1~3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G

글 · 김민지 기자

추석을 한 주 앞둔 9월 15일 파란 가을 하늘 아래로 토사(土沙)가 반짝였다. 강가에서 봄직한 자갈들과 모래로 가득 찬 이곳은 충북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자리한 양촌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16만8천 제곱미터의 양촌지구 곳곳에는 덤프트럭과 포클레인 등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대부분 평평한 공사 현장과 달리 뻥 뚫린 구멍처럼 낮은 지대가 눈에 띄었다. 한눈에도 주위보다 10미터 정도 낮아 보이는 이곳에선 흙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양촌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는 장한상(43) 현장소장은 "이곳이 바로 양촌리 농민들이 농사짓던 저지대 농경지"라며 "양촌지구의 경우 하천변 제방보다 최대 10미터 정도 낮은 곳이 많다. 현재 이곳은 준설토로 메우기 전 표토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 가금면 4대강살리기 사업 중원지구에 인접한 양촌지구와 배대보지구는 한강에서 나오는 준설토로 농경지 리모델링을 하는 유일한 곳이다. 금강(19개 지구), 영산강(6개 지구), 낙동강(1백22개 지구)에 비하면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 수는 적지만 농민들의 호응은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

그 이유는 한강변에 인접한 농경지 중 매년 가장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어온 곳이기 때문이다. 남한강 지천인 구룡천에 위치한 양촌지구, 영덕천과 원곡천 인근에 있는 배대보지구는 남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해 두 지구의 하천변 농경지는 '버려진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래전부터 침수 피해가 심각했다.

"아유, 말도 마요. 없는 땅이라 생각하며 지내려 해도 농사

충주시 배대보·양촌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농경지 높아져 물난리 걱정 없어졌죠"

농민에게 땅은 삶의 터전이다. 농민들은 땅에 뿌린 씨앗으로 희망을 품으려 했지만 수십 년간 찾아온 침수 피해로 절망의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이제 4대강 준설토를 이용해 저지대 농경지를 돋우는 농경지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이들은 다시 농업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은 하천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막는 최선책이다. 현재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에 위치한 배대보지구는 전체 공정이 35퍼센트 진행됐다.

꾼한테 땅이 그렇게 된대요? 이 땅에 5년간 농사짓는다고 치면 수확률이 20~30퍼센트밖에 안 돼요. 비만 오면 물이 넘쳐 벼가 잠겨 못쓰게 되는 게 연례행사라니까요. 옛날엔 어떻게든 울고불고 매달려 고쳐보려고 했지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촌지구 현장에서 만난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 송곡마을에 거주하는 박종석(58) 씨의 말이다. 예전 침수 피해 기억을 떠올려달라고 하자마자 “물난리로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며 목소리가 격앙됐다. 하지만 이내 박 씨는 “이제 지긋지긋하던 비 걱정도 끝이다”며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한 곳을 손가락 끝으로 가리켰다.

“아마 이쯤이 제가 농사짓던 곳이 아닐까 싶어요. 벌써 이렇게 준설토가 성토돼 높아졌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땅이 이렇게 높아지니 물난리로 고생할 일도 없을 테고, 앞으로 용수로, 배수로며 농로까지 설치해준다니 새롭게 변한 땅에 마음껏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줘 고마울 따름입니다.”

양촌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된 박 씨의 땅은 1만 4천8백76제곱미터. 하천변 농경지로 벼농사마저 제대로 지을 수 없었던 이 땅에 준설토가 성토되면 농경지 높이가 평균 6미터 정도 올라가고 논과 밭의 돌려짓기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땅값이 4배나 올랐다고 한다.

박 씨는 “땅값이 오른 것보다 땅의 가치가 오른 것이 더욱 기쁘다”며 “벼농사든 밭농사든 ‘양촌리’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산품을 재배하고 싶다”고 말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 수 적지만 농민 호응 높아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지역개발팀 황일선 차장은 “현재 농경지 리모델링은 양촌지구 64필지(54가구), 배대보지구 1백26필지(87가구)가 해당되며 내년 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침수 걱정 없는 농지를 확보하게 된다”며 “벼농사에만 매달렸던 기존 영농환경이 시설 원예, 하우스 재배 등 다양한 분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촌지구는 배대보지구보다 준설토 운반이 늦어 전체 공정률이 10퍼센트 정도 진척됐다. 그동안 비가 많이 내려 아직 흙이 축축하지만 성토된 곳을 다닐 때면 지반이 꽤 단단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양촌지구 장한상 현장소장은 “준설토에 있는 서로 다른 크기의 자갈과 모래 입자 등이 압축돼 빈 공간을 잘 메우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성토 및 표토 작업을 마치고 내년엔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공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씨와 또 다른 수혜자인 월촌마을 이장 이인근(58) 씨에

배대보지구 수혜 농민 신관용 씨

“논·밭농사 겸하며 제2의 인생 맞고 싶다”



신관용(58) 씨는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2구 마을에서 13대째 살아오고 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열두 살 때부터 농사일을 시작한 그를 괴롭힌 것은 고질적인 침수 피해였다. 영덕천 인근에 자리한 그의 논은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로 물이 들어차 쌀 한 톨도 건지지 못할 때가 부지기수였다. 하천변 농경지 주민을 위한 배수펌프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수년간 넣어봤지만 늘 ‘기다려달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그러던 그에게 꿈같은 현실이 찾아왔다. 준설토를 이용한 농경지 리모델링 지구에 그의 논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신 씨는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라며 “벌써부터 내년 말이 기대된다. 새롭게 태어난 땅에서 논농사와 밭농사를 겸하면서 농사꾼으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지난해 7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농민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저지대 농경지 침수 피해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흙으로 땅을 돋워 높이는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하천변 농경지의 침수 피해는 어느 정도로 심각했습니까.

아무리 벼가 침수에 강하다 하더라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며칠씩 꼬박 잠기면 알곡이 여물지도 않은 채 못 쓰게 됩니다. 가뜩이나 벼농사 수입이 변변치 않은데 하천변 농경지에서 벼농사 짓는 것 자체가 어려우니 고생이 많습니다. 5년에 두 번 정도 수확하면 다행이지요.

2년 정도 휴경하는 동안 어떻게 지낼 계획입니까.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영덕천 인근 2만6천1백60제곱미터의 땅이 포함됐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거해 6천8백만원 정도 보상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을 마친 땅에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필요한 농기구는 무엇인지 점검하며 준비할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으론 하우스 재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수박이나 참외로 유명한 지역 농민을 모셔다가 재배 기술을 배워볼까 합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에 대한 주변 반응은 어떻습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다른 동네 친구들이 ‘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 자주 묻습니다. 다들 ‘복 받았다’며 부러워하고요. 아직 사업이 완료되려면 멀었지만 벌써부터 하천 농경지 값이 오르는 등 그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의 버려진 땅에 지나지 않던 제 땅이 농민들이 주목하는 미래 영농환경의 현장이 된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게 항간에 나도는 준설토 오염 문제에 대해 묻자 "우리 농민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 씨는 "옛날에 제방이 없는 강 근처만 봐도 개흙들이 쌓여 있는 걸 봤다. 준설토 역시 그런 흙과 비슷한 걸로 안다"면서 "준설토 성토 후 농사짓던 흙인 표토를 50센티미터나 복원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천 인근 농경지 리모델링 통해 땅 되살아나 기뻐"

양촌지구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충북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에 자리한 배대보지구는 양촌지구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 벌써 준설토가 98퍼센트나 반입된 상태다. 현장 곳곳에 꽂힌 깃발은 준설토의 높이와 농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배대보지구를 담당하는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지역개발팀 김재구 과장은 "며칠 전에도 영덕천 제방 1미터를 남겨두고 물이 넘칠 뻔했다"며 "이번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민들의 만년 걱정이던 침수 피해도 막고, 친환경 영농환경을 구축한 농경지 덕분에 농민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대보지구에 4천 제곱미터 정도의 농지가 포함된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목계2구 마을 주민이자 식당 주인인 김기영(64) 씨는 "하천 인근 농경지에서 농사짓는 것도 힘든 데다 떨어지는 쌀값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기회에 땅이 되살아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농경지를 리모델링한 땅에 벼를 열심히 심어 손님들에게 더 맛있는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배대보지구 안중현 현장소장

"지역 건설업체 호황 주역"



농지 경지정리 작업 등 여러 건설 경력이 7년째인 안중현(32) 현장소장은 배대보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대자개발주식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하천 준설토를 이용해 저지대 농경지를 높이는 작업은 농민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의 호황도 불러일으키는 반가운 사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배대보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25만1천 제곱미터의 저지대 농경지에 전체 준설토량의 98퍼센트에 달하는 준설토가 반입됐습니다. 준설토를 펴 고르는 작업을 하는 중이며 올해 말까지 성토 후 기존 논흙으로 덮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4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한강 중원지구에서 발생한 하천 준설토를 25톤 덤프트럭 70대가 하루 3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준설토에 섞인 자갈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변화될 하천변 농경지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올해 말 경지정리 공사를 마치면 평균 4.05미터 정도 농경지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을 설치하면 농민들은 2012년엔 영농환경이 개선된 농경지에서 마음껏 농사지을 수 있게 됩니다.

충주시 소태면 양촌리에 위치한 양촌지구는 예전엔 구룡천 제방보다 낮았지만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준설토를 성토하면서 그 높이가 평균 6미터 정도 높아졌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더 나은 영농환경 마련”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조정림 기자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4대강의 준설토를 활용해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를 예방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농민들에게 더 나은 영농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취임 2년을 맞이한 홍문표(63)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소신은 변함없다. 물과 땅을 되살려 농어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농업을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수시로 농촌 현장을 방문해 영농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홍 사장은 지난해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면서 더욱 바빠졌다. 4대강살리기 연계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 때문이다.

4대강 주변 지역 농경지 리모델링 선정지구를 10여 차례 방문한 홍 사장은 “농민들의 환한 미소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보았다”며 “4대강살리기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농민에게 더 나은 영농환경을 마련해주는 계기”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4대강살리기 관련 사업들 중 농경지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4대강살리기와 연계된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사업, 농경지 리모델링이 그것입니다.

올해 초부터 내년 말까지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민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4대강살리기를 통해 하천에서 파낸 흙을 침수가 잦은 저지대 농경지에 쌓아 지반을 높여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4대강에 인접한 전국 1백49개 지구 농경지를 대상으로 2억2천만 톤의 준설토를 성토하면 농경지의 높이가 평균 2.6미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농민이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애로사항은 늘 ‘물’입니다. 비가 적게 와도, 많이 와도 걱정, 3백65일 노심초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민들의 오랜 바람을 해결하는 미래 농업의 희망입니다.

저지대 농경지의 높이가 높아지면 농민들의 집중호우나 홍수 피해가 최소화되고 여기에 준설토로 성토된 농경지가 논밭 겸용 농경지로 탈바꿈돼 농산물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렇듯 농지 가치는 오르고 농가소득이 증대되니 농민들이 환영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과 달리 농경지 리모델링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가 전부 지역건설업체로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 이후 일부 지역에서 추가 지정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했기 때문에 지구 추가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준설토 사용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추가 지정을 원하는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농촌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영농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내년 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농경지에 대한 토성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농경지에 맞는 고소득 작목 재배여건을 알리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면 농민들이 살맛 나는 농촌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조영철 기자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회원 등 여주군 주민 5백40명은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 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여주 군민의 희망… 4대강살리기 적극 찬성"

4대강 사업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위한 여주 군민 결의대회

4대강살리기 사업에 찬성하는 경기 여주군 주민들이 모였다.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은 9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회원 45명, 여주지역 주민 4백50명, 한강살리기 사업 지원단 45명 등 5백40명이 참가했다. 대회 후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장님께 드리는 여주 군민의 건의문'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여주 군민들은 건의문에서 "여주지역 주민들은 매년 홍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 등 남한강개발사업은 여주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4대강살리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도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그동안 규제와 정체에 머물러 있던 여주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여주군은 1972, 1990, 1995, 2001, 2006년에 큰 물난리를 겪었으며, 특히 2001년 피해액은 91억원에 달했고, 2006년에는 59억원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조선시대 이포, 조포나루 등 한강의 4대 나루 중 2개가 여주에 있을 정도로 교통 요지였던 여주군은 육상 운송로와 화폐의 발달로 침체의 길로 들어섰고, 근래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공장, 대학 등의 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1960년대 10만명이던 인구는 현재도 11만명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주 군민들은 남한강살리기 사업이 하천환경정비는 물론 생태하천과 자전거도로 조성 그리고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 등 3개 보 설치로 새로운 관광자원이 발생해 여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한강살리기 사업 구간 중 여주구간은 38.9킬로미터로 1조9백1억원이 투입된다.

3개 보 설치로 새로운 관광자원 생겨 여주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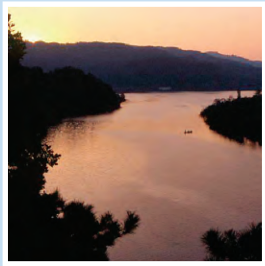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황순걸 회장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일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이 4대강살리기 사업 반대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는 여주 군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여주녹색성장실천연합 김연태 본부장도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소수집단의 편향된 생각으로 전체의 이익을 저버리고 국책사업을 훼방 놓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기 획 특 집

인간과 자연,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4대강 36景'

강마다 고유의 빛깔을 지닌 수변 생태경관이 만들어집니다.
그중에서도 각 지역과 강의 특성을 반영한 서른여섯 곳은 지역명소 '36경(景)'으로 특화됩니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강변은 4대강살리기 사업 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사람들의 건강한 삶과 예술이 흐르는 공간,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행복충전 공간. 달라지고 있는
4대강의 수변 생태경관이 보여줄 미래 청사진입니다.



생태 복원… 친환경·인간 친화적 공간 조성

낙동강 유역 12경 시작으로 36경 발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수변 경관거점 '36경(景)'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이들 36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에코폴리스(Ecopolis)를 지향하며 4대강 수변 생태계를 복원하고 친환경 시설을 갖춰 주민 삶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안 오염과 악취에 시달리던 서울 청계천이 맑은 물이 흐르는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울산광역시의 태화강도 마찬가지다.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태화강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울산 시민과 시, 정부의 단합된 노력으로 수질이 4, 5급수에서 1급수로 향상됐을 뿐 아니라 수변에 환경친화적인 둔치와 숲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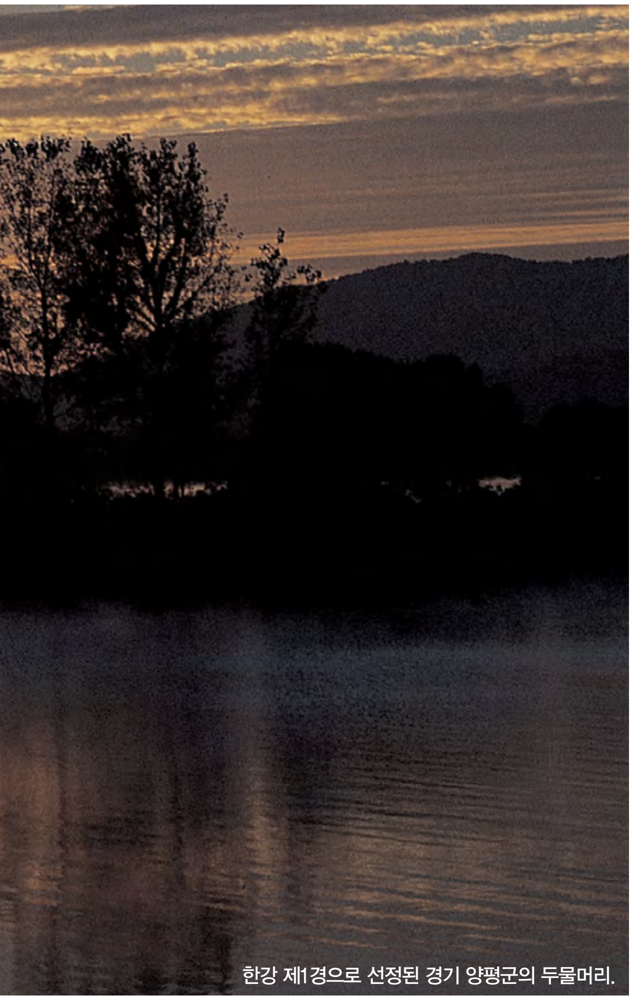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자 젖줄인 4대강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생명력 넘치는 수변공간(Waterfront)으로 다시 태어날 채비를 하고 있다. 수변공간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21세기 녹색 르네상스를 위한 문화 실크로드의 구현'이라는 기본계획을 현실화한 공간이다. 수변공간이 조성되는 곳은 4대강 주변 2백15개소로 총연장이 9백29킬로미터에 이른다.

4대강 강변은 그동안 무분별한 농경지 개발과 관리 소홀로 크게 훼손됐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전체 둔치 면적의 58퍼센트를 농경지나 비닐하우스가 차지해왔다. 금강 둔치는 65퍼센트, 영산강의 경우는 67퍼센트가 농경지나 비닐하우스로 이용돼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연구위원은 "하천 둔치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농약, 비료, 퇴비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과 토질을 악화시켰다. 또 자연하천 주변의 수림대가 사라지고 도로, 주차장, 운동장 같은 인공시설이 들어서면서 완충지대로서의 수변공간 기능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수변공간은 강이 흐르는 유역 특성에 맞게 특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수변공간 설계의 기본방침은 친환경적이고 인간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수변공간은 강이 흐르는


조영철 기자

한강 제1경으로 선정된 경기 양평군의 두물머리.

유역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다.

우리나라의 중심을 흐르는 한강의 수변공간은 '현대적 감성공간'으로, 백제문화권을 흐르는 금강은 '역사의 부활공간'으로, 철새들이 찾아드는 낙동강은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공간'으로, 예향(藝鄕) 광주와 나주를 지나는 영산강의 수변공간은 '멋과 맛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0월부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별로 '수변 생태공간 및 지역명소(경관거점)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4대강에 환경과 사람이 조화롭고 행복한 수변 생태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새로운 명소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추진본부는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의 생태·문화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대강의 수계별로 특색 있는 지점 36곳을 지역명소 36경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토해양부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이들 36경과 수변 생태공간 계획을 알리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9월 13일 낙동강 유역 12경을 시작으로 14일 한강 8경, 15일 영산강 8경, 16일 금강 8경이 발표됐다. 이들 36경은 강이 흐르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 생태, 역사, 지역문화 등을 강조하는 경관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때 각 거점을 중심으로 강마다 형성돼 있는 생태하천, 습지, 갈대군락지 등의 자연과 문화·역사자원은 최대한 그대로 활용된다. 다만 유실되거나 소실된 부분은 보완하거나 보강하고 자전거길, 쉼터, 전망대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는 친환경 조성방식이 적용된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은 "지역명소를 중심으로 수변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주변 자전거 여행자 위한 숙박시설도 조성

전문가들은 앞으로 36경이 모두 조성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을 펼친 선진국들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젖줄이자 관광명소인 런던의 템스강이 대표적이다. 템스강변을 따라 잘 정비된 산책로는 시민들의 운동코스나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뉴욕의 브롱스 지역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그린웨이, 자전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수변공간을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있다. 최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수변공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물을 기반으로 하는 수변공간이 늘어나면 일반 공원에 비해 단위면적당 신체운동을 하는 주민의 비율이 17배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은 "4대강의 수변공간은 주민의 활발한 신체운동을 유발하고 이로 말미암아 건강 개선과 의료비 지출 감소 등 가구당 실질소득을 높이는 구실까지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와 연계된 수변 관광코스가 개발되면 한국적인 문화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임승빈 교수는 "4대강 수변공간은 앞으로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어메니티(Amenity)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변공간 조성은 생태환경과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장단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면서 느긋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남한강 115킬로미터 구간에 꾸며진 '한강 8경'

물길 따라 자연·역사·문화 향기 '가득'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유역에는 예부터 전해오는 문화와 역사유적이 즐비하고 강마을의 생활풍속이 넉넉히 깃든 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강을 지나며 선조들의 희망을 실어나른 황포돛배,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다는 탄금대 등이 그것이다.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우수한 한강변은 이제 자연과 역사, 문화의 향기를 오롯이 담은 수변 생태공간으로 거듭난다.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나눠진 한강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질이 좋고 철새 도래지가 많아 하천 생태계가 양호한 수계다. 그 주변에는 단양쑥부쟁이, 고니 등 환경부가 지정한 동식물 보호종의 서식처가 여러 곳 있다. 높은 산림이 병풍처럼 둘러싼 수변은 경관 또한 일품이다. 둔치의 폭이 좁고 강변이 발달한 점도 이색적이다.

한강 중류부에는 침식분지가 형성된 이천·여주 평야가 있고, 하류부에는 퇴적토가 쌓여 만들어진 김포평야가 있어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국내 유수

한강

줄기마다 우리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한강.
풍부한 문화유산과 레저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www.4rivers.go.kr
서울지방국토관리청(남한강) ☎ 02-2125-2762
원주지방국토관리청(북한강) ☎ 033-749-8292


동아DB

데이트 코스, MT의 명소



이포보 경관과 함께 즐거운 피크닉!


동아DB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황포돛배와 함께




동아DB

겨울 설경과 일몰이 아름다운 곳



생명이 살아 넘치는 자연경관

의 곡창지대다. 세종대왕릉, 신륵사, 도예촌 등 전통문화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관광명소도 많다.

한강 유역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경관거점으로 만들 만한 8곳이 '한강 8경'으로 뽑혔다. 모두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명소들이다. 1경은 낙조와 연꽃 군락이 절경을 이루는 경기 양평군 두물지구의 두물머리다.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강원 태백시 금대봉 검룡소에서 시작된 남한강의 물길이 만나는 곳이다.

억새 군락지인 교평지구는 친환경 휴식공간

두물지구는 예전에 두물나루터, 소내나루터(남양주 다산지구), 귀여나루터(광주 귀여지구)와 연계해 내륙의 주요 교통요지로 이용된 지역이다. 다양한 수중식물을 보유하고 연꽃박물관 등 생태학습공간을 갖춘 세미원 덕에 연간 약 15만명이 찾고 있다. '도당할매'라는 4백 년 된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몰과 설경이 아름다워 영화, 드라마, 광고 촬영장소로도 인기다.

앞으로 이곳에는 기존의 연꽃밭, 석청원, 느티나무 아래 산책로로 이어지는 산책길이 조성된다. 아울러 비닐하우스 농지를 생태벨트로 조성하고 초지 군락, 둔치 숲 등으로 경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책길과 일몰, 둔치 숲이 어우러진 모습과 두물머리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강변 휴게공간도 생긴다.

남한강 상류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경인 양평군 교평지구의 억새림에 다다른다. 억새 군락지인 교평지구는 강 둔치와 제방이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꾸며진다. 억새림에는 기존의 양평 강상체육공원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광장과 잔디마당이 만들어진다. 기존의 억새림을 더욱 확대하고 느티나무로 둔치 숲을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각종 희귀 동식물이 사는 여주군 당남지구의 이포보와 초지경관은 3


강천섬에 다시 핀 단양쑥부쟁이


친환경 수변공원과 학습장


기암절벽과 송림이 어우러진 절경




연양지구 생태공원


한강 2공구 전북지구 제방축조 완료 후 식생매트

동아DB


연꽃, 수란 등 다양한 수중식물을 키우고 있는 경기 양평군 두물지구의 세미원. 전통 건물과 돌담, 연못 등이 조화를 이룬 정원이 평온하면서도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낸다.

경으로 선정됐다. 아름다운 초지경관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이포보 주변에는 이포습지, 부처울습지, 복대습지 등을 아우른 친환경 수변공원이 들어선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색 있는 경관을 뽐내는 다채로운 숲도 만들어진다.

세종대왕 발명 주제로 한 여주보도 관광자원으로

4경은 여주보가 설치되는 여주군 천남·가산지구의 물억새 군락지와 자연형 어도다. 이 지역의 둔치와 자연형 어도에는 계절별 경관성을 고려해 물억새, 꽃창포, 패랭이 등을 심을 예정이다. 수변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 둔치 숲과 제방 숲, 억새 군락지도 조성한다.

특히 가산지구는 쌀밥나무로 불리는 이팝나무를 심어 한여름의 쌀과 같은 흰 꽃의 군락지로, 천남지구는 산수유를 심어 봄을 알리는 노란색 꽃의 군락지로 특화한다. 세종대왕의 발명을 주제로 한 여주보는 인근의 세종대왕릉, 신륵사, 천서리 먹을거리촌 등에 버금가는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주군 연양지구의 황포돛배는 5경으로 이름을 올렸다. 연양지구는 조선시대 한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황포돛배가 다니던 지역으로 여주군을 상징하는 느티나무 2백 그루를 심어 수변 경관성을 향상시킨다. 또 금은모래터 주변에는 황포돛배 모형을 갖춘 체험형 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

물길을 더 따라가면 남한강변에서만 자생하는 여주군 강천지구의 단양쑥부쟁이(6경)와 충북 충주시의 능암리섬(7경)을 만날 수 있다.

단양쑥부쟁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 멸종위기종 2급 보호식물이다. 척박한 자갈밭에서 자생하고 다른 종과 어울려 살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강천지구의 단양쑥부쟁이 서식처는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에 최소한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만을 만들어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각종 희귀 수생동식물의 서식처로 유명한 능암리섬은 샛강 복원과 갈대 군락, 능수버들 수변림, 철새 도래지 조성을 통해 생태거점 기능이 강화된다.



마지막 8경으로는 신라 3대 악성인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해 유명해진 충북 충주시 탄금대가 선정됐다. 기암절벽을 휘감아 돌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자연경관이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곳이다.

탄금대는 중원 고구려비, 충렬사, 유엔평화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충주호 등과 어우러져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탄금대 앞에는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등으로 이뤄진 수변림과 야생 초지가 발달한 용섬이 있다. 탄금대에서 바라보는 용섬의 모습 또한 절경이다.

용섬, 생태거점이자 동식물 안식처로 발돋움

용섬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사람의 이용과 인공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생물 서식처를 늘려 생태거점이자 동식물의 안식처로 자리 잡게 된다. 수변에는 기존의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등과 잘 어울리는 능수버들을 심어 탄금대에서 조망하는 용섬의 절경을 더욱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지역명소이자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가 될 한강 8경은 경기 광주시 팔당댐에서 충북 충주시 충주댐에 이르는 남한강 1백15킬로미터 구간에 꾸며진다. 나무 심기 등 본격적인 조성작업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찬세 남한강사업팀장은 "10월부터 한강살리기 사업의 역량을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에 집중해 한강변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친인간적인 수변 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강 지역명소 8경

구분	1경	2경	3경	4경	5경	6경	7경	8경
경관자원	두물머리	억새림	이포보, 초지경관	물억새 군락지, 자연형 어도	황포돛배	단양쑥부쟁이	능암리섬	탄금대
특화 테마	두물머리의 일몰	둔치 및 제방 특화	이포보와 초지경관	여주보와 물억새 군락지	강천보 황포돛배	단양쑥부쟁이 자생지	물억새 군락지 철새 도래지	하중도
지자체	양평군	양평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여주군	충주시	충주시

유쾌한 설렘이 오감으로 전해지는 '낙동 12경'

대자연에 문화와 역사를 입히다

낙동강의 빼어난 옛 정취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복원되는 낙동강과 주변 지역의 문화, 역사를 결합한 '낙동 12경(景)'이 조성되는 것.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져다주는 유쾌한 설렘이 오감(五感)으로 전해지는 낙동강의 '귀환'이다.

철새들의 낙원 을숙도



화왕산에 펼쳐지는 억새들의 축제





세 줄기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곳





인공 실개천 조성
(경북 안동시 와룡면~임하면 경계)



생태공간과 하나 되는 물금 신도시



태곳적부터 살아 숨쉬는 자연



습지에 울려퍼지는 상생의 노래

한반도의 '동맥' 중 하나인 낙동강은 상·하류 전 구간에 걸쳐 습지와 갈대숲, 모래밭 등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고, 빈번한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절벽과 모래강변 등도 적잖이 분포한다.

이 때문에 곳곳에 인위적인 간섭 없이도 시너지효과를 내거나, 반대로 사람의 손이 가면 더 양질의 친환경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넘쳐난다. 낙동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 대상인 12경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낙동강만의 이 두 가지 생태적 특성이 비중 있게 고려됐다.

낙동강의 주요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12경(경북 7, 경남 5)은 순수 생태거점과 경관거점으로 나뉜다. 순수 생태거점으로 지정된 1경, 7경, 8경은 옛 자연의 '질서'가 크게 변하지 않은 곳으로 기존 환경생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생물종 수나 식물 군락지 등을 늘리는 변화가 시도된다.

나머지 9경은 경관거점으로 낙동강살리기 공사를 통해 확보되는 수자원 및 보(洑) 시설물을 지역 특유의 경관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결국 12경 모두가 특색 있는 수변 생태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낙동강

장장 1천3백리에 이르도록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우리 삶을 품어준 고마운 강.
물굽이마다 꽃피운 비경이
가슴 속에 스며듭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051-660-1268

밤에도 빛나는 호국의 다리



칠곡군청

자전거나라와 억새숲으로 떠나자!



10 자전거축제, 자원생물관
경북 상주시 남장동

7 호국의 다리, 호국공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9 낙동나루터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8 해평들 흑두루미
경북 구미시 해평면

11 삼강 자연경관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12 하회마을 병산서원
경북 안동시 풍천면



낙동강의 종착지 낙동나루터의 부활



낙동강 16공구 준설지 잔디 조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초동면)



해평들 너머 펼쳐지는 두루미의 군무



5천 년 문화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리움의 고향 삼강주막

12경 중 1경은 부산광역시에 자리한 을숙도다.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하중도(河中島)로 갈대와 수초가 무성하고 어패류가 풍부해 생물 서식지로서는 최적의 지역이다.

하지만 낙동강 하굿둑 완공 등으로 섬 전역이 공원화되면서 그 생명력을 일부 잃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을숙도를 '철새들의 낙원'으로 복원한다. 그 일환으로 을숙도 북쪽 공간에 식생 하안과 바람의 광장, 양서류 서식지 등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합천보 주변, 야생화 군락·나루터 등 친수 문화공간 조성

2경인 경남 양산시의 오봉산 임경대(臨鏡臺)의 테마는 '갈대의 노래'다. 원동습지, 월촌습지 등이 형성돼 있고 임경대와 증산성에선 낙동강 전체 조망이 가능하다. 특히 오봉산은 영남알프스가 끝맺음하는 봉우리다. 때문에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전경을 내려다보는 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경치 하면 오봉산에서도 임경대라는 정자를 빼놓을 수 없다. 신라 말기의 대표적 학자인 고운(孤雲) 최치원이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시를 썼을 정도로 완벽한 조망을 자랑한다.

2경은 이렇듯 천혜의 조망 조건에다 갈대 초지군락을 조성해 더욱 완벽한 경관을 만든다. 대규모 연꽃원도 조성해 경관 색채의 균형을 맞춘다. 더불어 양산 문화축제와 연계한 숲속건강원과 농경체험원도 조성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옛 자연의 질서가 크게 변하지 않아 인위적 간섭이 최대한 배제되는 순수 생태거점 3곳과 보(洑) 등의 건설로 새로운 구조물 경관 등이 생긴 9곳의 경관거점 모두 특유의 지역 문화, 역사 및 환경 특색과 조망, 접근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친환경 수변 생태공간으로 거듭난다.

국내 최대 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선 5경의 생동감 넘치는 장관이 연출된다. 우포늪 생태복원의 상징인 우포 따오기와 야생화가 그 주인공으로 '듀엣 공연'을 펼치게 된다. 우포늪과 연계해 경남 합천군 합천보 주변에도 야생화 군락 및 나루터 등 친수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동아DB

낙동강변의 절경지 중 하나인 부용대 절벽에서 바라본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전경.

경북 고령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걸친 달성습지는 6경으로 선정됐다. 6경의 주제는 '상생'이다. 습지 주변으로 물억새 군락과 꽃창포 군락을 조성하고, 이들과 어우러지게 옛 나루터를 복원할 예정이다. 이 지역의 특화 테마인 강정보 주변에도 상생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보 하류 달성습지 방향 금호강 합류지점에 발달된 모래톱에 '물새소리 습지원' 과 '풀벌레 소리원'을 만든다. 이로써 달성습지와 강정보 주변에는 문화와 생태가 하모니를 이루는 상생의 경관이 펼쳐지게 된다.

역사와 낙동강 풍경이 결합된 12경 '하회마을 병산서원'

역사와 낙동강의 풍경이 결합된 12경은 경북 안동시의 하회마을 병산서원이다. 하회마을의 역사와 문화자원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부용대와 옥연정사, 화천서원 등 역사·문화자원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그중 부용대(芙蓉臺)는 하회마을 서북쪽 강 건너 광덕리 소나무 숲 옆에 있는 해발 64미터 절벽으로 낙동강을 대표하는 경관 중 하나다. 하회마을과 부용대 사이에 있는 병산서원 하부엔 수려한 낙동강 경관을 보며 안동의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천변 테라스 공간이 조성된다. 조선 선조 때 재상 류성룡을 향사(享祀)한 풍산 류씨의 서원인 병산서원은 그 절경과 역사를 감안해 낙동강 마지막 12경에 그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3경인 경남 밀양시의 삼랑진(억새 물결의 일렁임), 4경인 창녕군 화왕산 억새축제(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의 속삭임), 7경인 경북 칠곡군의 호국의 다리, 호국공원(물과 모래의 상생), 8경인 구미시 해평들 흑두루미(두루미의 군무), 9경인 상주시 낙동나루터(낙동나루의 부활), 10경인 상주시 자전거축제, 자원생물관(자전거 나라와 억새숲), 11경인 예천군 삼강 자연경관(삼강주막과 노목) 등이 낙동강의 옛 추억과 미래 희망을 돋보이게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노원우 팀장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의 상생을 위한 생태 경관을 복원함과 동시에 이를 옛 길손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해 진정 낙동강이 우리 품속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흐르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유재영 기자



낙동강 지역명소 12경

구분	1경	2경	3경	4경	5경	6경
경관자원	을숙도 철새 도래지	오봉산 임경대	삼랑진	화왕산 억새축제	사주와 자연습지	달성습지
특화 테마	생태습지	낙동강 조망	하중도	지역 문화축제	합천보	강정보
지자체	부산광역시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창녕군	합천군	고령군, 달성군
구분	7경	8경	9경	10경	11경	12경
경관자원	호국의 다리, 호국공원	해평들 흑두루미	낙동나루터	자전거축제, 자원생물관	삼강 자연경관	하회마을 병산서원
특화 테마	사주, 갈대숲	구미보, 철새 도래지	낙단보, 낙동나루터	상주보, 억새숲	삼강주막과 노목	문화자원 감상
지자체	칠곡군	구미시	상주시	상주시	예천군	안동시

생태와 역사가 어우러진 '금강 8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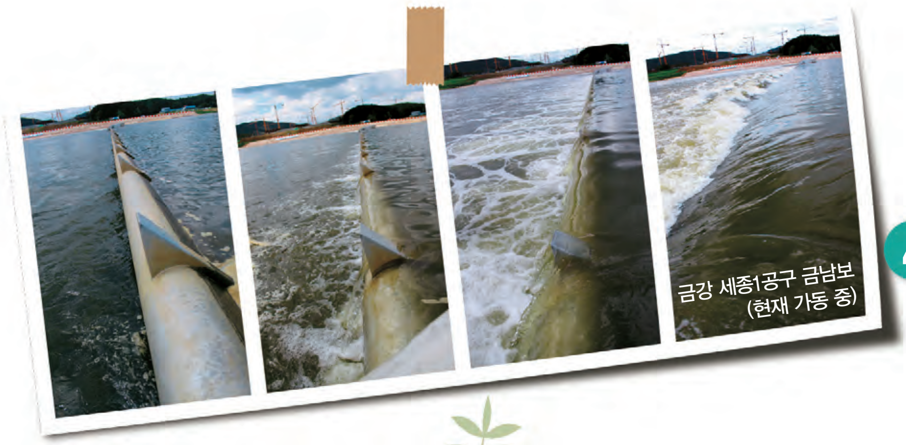
비단강 따라 다시 살아나는 백제 숨결

창공을 수놓는 철새의 군무, 바람 따라 노래하는 갈대숲, 처녀곰과 어부의 슬픈 전설이 있는 곰나루…. 생태와 역사가 어우러진 지역명소 금강 8경(景)으로 아름다운 비단강이 다시 태어난다.

금강은 비단을 풀어놓은 듯 아름답다고 해서 비단 금(錦)자를 쓴다. 험준한 산 사이를 구불구불 흐르며 계곡미를 이루다가 하류로 오면 낮은 구릉지와 평탄한 농경지 사이에서 호수처럼 잔잔한 경관을 만들어낸다.

금강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강을 따라 찬란했던 백제 문화유적이 흩어져 있고 서해와 만나는 하구는 우리나라에서 철새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다.

이 같은 금강의 자연경관과 생태를 살리면서 역사와 문화를 꽃피울 금강 인근 명소들이 금강 8경으로 선정됐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금강 세종1공구 금남보 (현재 가동 중)





철새들이 깃들이는 천혜의 환경



19만 제곱미터의 황금물결 갈대밭



금강이 자랑하는 역사문화지



대규모 생태 초지 군락

수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1경은 전북 군산시 성산면 금강 하굿둑 철새 도래지다.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금강 연안의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을 위해 완공된 길이 1천8백41미터에 1억3천만 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대규모 방조제로, 주변 갯벌에는 먹잇감이 풍부해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연출한다.

수만 마리 철새 장관 이루는 금강 하굿둑 철새 도래지

이 지역은 금강 하류 경관이 아름답고 갈대습지 등 생태경관 요소도 풍부하다. 따라서 기존의 철새 조망대와 갈대습지 등과 연계한 수변 탐방로, 친수 전망대, 수변 자연체험장 등 다양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되고 테마별 탐방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경은 갈대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갈대밭이다. 19만8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신성리 갈대밭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TV 드라마 〈추노〉 〈이산〉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기존의 갈대숲을 보존하면서 둔치 숲을 새로 조성하고 자전거 휴게쉼터를 만들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경은 충남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과 팔괘정이다. 옥녀봉은 경치가 아름답고 산 아래로 흐르는 강물이 맑아 보름이면 하늘나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며 놀았는데, 어느 날 옥황상제의 딸 옥녀가 내려왔다가 하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다.

금강을 바라보고 서 있는 팔괘정은 조선시대 학자 송시열이 당대의 학자 및 제자들과 강학했던 장소로 전해진다.

강경읍과 가까운 옥녀봉과 팔괘정 인근은 옛 강경포구를 테마로 한 도심형 친수공간으로 조성된다. 지역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변 잔디

금강

천리물길 풀어내는 비단강
백제 문화의 중심지로
일본에 백제문화를 전파한
'컬처로드' 금강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042-670-3328

6 금강보, 곰나루
충남 공주시 웅진동



금강 세종1공구 금남교 하류의 대평제 식생매트.

7 금남보, 세종시
충남 연기군 금남면

8 합강정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리



부활하는 백제의 역사, 부여보!



백제 역사가 살아 숨쉰다!



도시민들의 자연학습체험장



수려한 자연경관



금강을 따라 수많은 백제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 사진은 충남 부여군의 궁남지. 호수와 정자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마당, 수변무대 등이 들어선다.

4경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낙화암, 부소산성 그리고 구드래다. 낙화암은 부소산 서쪽 낭떠러지 바위로 백제 의자왕 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 왕성이 함락되자 삼천궁녀가 몸을 던진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부소산성은 백마강(부여를 흐르는 금강의 명칭) 남쪽 부소산을 감싸며 쌓은 백제 사비시대의 도성(都城)으로 성내에는 사자루, 영일루, 반월루, 고란사, 낙화암, 군창지 등 많은 유적이 있다. 또 구드래에는 황포돛배 나루가 있다.

백마강 인근엔 백제문화 테마로 한 축제공간 마련

이곳은 백제문화를 테마로 한 축제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기존 체육공원과 연결된 둔치 숲과 테마 초지 군락을 조성해 친수성을 높이고 녹지벨트를 구축한다.

5경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왕진나루와 부여보다. 왕진나루는 강경포구, 구드래, 곰나루 등과 함께 과거 물류의 집산지였던 곳으로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룬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또 부여보는 백제를 지키다 산화한 계백장군이 부여를 지키기 위해 돌아온 모습을 형상화해 더욱 의미가 있다.

왕진나루를 옛 모습대로 복원하면서 친수공간을 집중 배치해 부여보와 왕진나루를 거점공간으로 명소화한다. 또 부여보 인근의 자연습지를 살리면서 생태공간을 조성해 다양한 동식물이 사는 건강한 생태하천을 만든다.

6경은 충남 공주시 곰나루와 금강보다. 곰나루는 한 어부가 인근 연미산의 암곰에게 잡혀 부부의 연을 맺고 2명의 자식까지 두었으나 끝내 도망가자 곰이 아이들을 안고 금강에 투신했다는 전설을 지녔다. 곰나루에는 금강의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올리던 웅진단(熊津壇) 터가 남아 있으며 옛 수상 교통로로서 민중의 정서와 애환이 짙게 서려 있는 곳이다.

곰나루 인근에 건설되는 금강보는 백제 무령왕을 상징하는 봉황을 모티프로 한다. 주변에 웅진사, 공산성, 공산성 연지, 송산리 백제고분군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곳은 곰나루뿐 아니라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을 복원해 백제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한

조영철 기자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는 탁 트인 풍경이 일품인 데다 하중도와 습지가 많아 수려한 생태경관을 연출한다. 이곳에 세워질 합강정은 금강 최고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다. 또 기존 소나무 군락을 확장하고 모래톱을 복원해 금강의 전통적인 모습을 되살림으로써 금강보, 곰나루, 둔치 숲을 연계한 경관거점으로 특화한다.

7경은 행정복합도시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세종시와 금남보다. 세종시 초입에 자리하는 금남보는 세종시의 상징성에 맞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독창성과 측우기의 과학성, 충남 연기군의 상징인 제비와 금강 물결을 상징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곳은 세종시와 연계된 도심형 수변경관으로 조성된다. 금남보를 중심으로 마리나 등 친수공간이 마련된다.

8경은 아름다운 경관이 병풍처럼 펼쳐진 충남 연기군 동면 합강정이다. 합강정은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 세워질 정자를 말한다. 합강리는 탁 트인 풍경이 일품인 데다 하중도(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와 습지가 많아 수려한 생태경관을 연출한다. 이곳에 세워질 합강정은 금강 최고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와 금남보, 소나무 숲 등 도심형 수변경관 조성

이곳에는 기존 습지 외에 자연형 습지와 초지 군락을 조성한다. 또 합강정을 중심으로 야생초 화원과 둔치 숲을 조성해 하중도의 초지 군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금강 8경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게 하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2경은 철새 도래지와 대규모 갈대숲이 있는 생태습지 등 금강 인근의 자생생물 서식처가 발달된 지역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생태관광자원 지역으로 인간의 영향으로 생태 교란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자생 서식처를 보전할 수 있는 생태적 완충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3~8경은 둔치 숲, 야생초화원, 초지, 자연형 어도, 모래톱 복원 등 친수공간과 인접해 생태적 완충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조성된다.

순수 생태거점공간과 친수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생태 복원을 돕고, 특히 금강과 지천이 합류되는 곳은 오염원 유입, 생태 교란, 무분별한 이용이 우려되므로 기존의 수림과 연계된 제방 숲이나 둔치 숲, 수질정화 습지 등을 조성해 생태적 연계성과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10월부터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역량을 수변 생태공간 조성 사업에 집중해 금강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친인간적인 수변 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금강 지역명소 8경

구분	1경	2경	3경	4경	5경	6경	7경	8경
경관자원	철새 도래지	갈대	옥녀봉, 팔괘정	백제 역사자원	부여보, 왕진나루	백제 역사자원, 금강보	금남보, 중앙공원	지천 합류부
특화 테마	철새 전망 기능 강화	생태 기능 강화 나루터 기능 강화	녹지벨트 구축 참여공간 조성	대규모 테마초지 군락 조성	부여보 경관 특화	역사, 친수,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	친수공간 경관 특화	수변경관 특화
지자체	군산시, 서천군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부여군	부여군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연기군	연기군

호남의 젖줄 영산강 '新영산팔경'

문화유적지와 수변 생태공간이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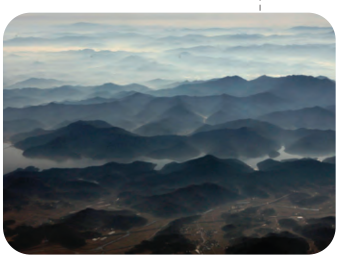
'호남의 젖줄' 영산강에 수변 생태공간인 '신영산팔경(新榮山八景)'이 자리 잡는다. 생태, 역사, 문화가 어우러질 지역명소 8곳은 영산석조 하구언, 곡강과 식영정, 석관정과 황포돛배길, 죽산보, 나주평야, 승촌보, 풍영정, 담양 대나무 습지다.

영산강에 생태경관과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신영산팔경(新榮山八景)'이 선보인다. 신영산팔경은 조선시대의 뛰어난 문필가들이 음풍농월을 즐기던 천혜절경 속 문화유적지와 새로 조성할 수변 생태공간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길이 1백15킬로미터에 달하는 영산강은 전남 담양군 용면 용추면에서 발원해 광주, 나주, 목포를 지나 서해안으로 흘러든다. 영산강에는 극락강과 지석강 같은 큰 물줄기뿐 아니라 작은 샛강 1천3백여 개가 굽이굽이 흐르다 본류에 합류하면서 곳곳에 비경을 이룬다. 한시 1천여 수를 남긴 백호 임제, 가사문학의 대가 송




수려한 경관과 볼거리가 가득!


굽이치는 곡류부의 절경 속으로!


30여 년만에 부활한 황포돛배


사계절 꽃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죽산보

강 정철 등 조선시대 풍류가객과 선비들은 이 무릉도원과 같은 풍광에 반해 영산강 유역에 무려 9백여 채의 소박한 정자를 지었다.

신영산팔경은 이처럼 선조들이 뛰어난 안목으로 선택한 명소들을 좀 더 가까이에 두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8개 지점들이다.

먼저 영산 1경은 저녁노을에 물든 영산강을 조망할 수 있는 영산석조(榮山夕照) 하구언이다. 바다로 흘러드는 영산강 하구언에는 제방에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데크가 들어서고, 자전거를 타다 쉬어갈 수 있는 휴게공간도 생긴다.

전남 무안군 몽탄면을 감싸고 굽이도는 곡강(曲江)과 이 강이 바라보이는 식영정(息營亭)이 영산 2경이다. 강이 말굽형으로 돌아 흘러가는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우승지를 지낸 한호가 여생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자인 식영정, 중국을 다녀와서 〈표해록〉을 남긴 조선의 문신 최부 선생 사적비 등의 풍부한 역사자원을 연계하는 탐방로와 자전거도로가 조성된다. 이와 함께 강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 인근 경작지를 갈대숲으로 바꾸며 마을 숲과 연계하여 생태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구언에서 죽산보로 오가는 황포돛배 뱃길 모습 재현

영산 3경은 강물 위를 유유히 흐르는 황포돛배가 한 폭의 그림처럼 내려다보일 석관정(石串亭)이다. 영산강의 2개 보 중에서 하류 구간에 설치되는 죽산보 인근에는 석관정, 금강정, 이별바위 등 역사·문화자원과 전설이 남아 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석관정나루, 금강정나루가 들어서고 황포돛배가 하구언에서 죽산보를 오가는 등 옛 뱃길이 재현된다.

이 뱃길은 황포돛배를 타고 이별바위, 석관정, 금강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나주영상테마파크로 이어지는 테마관광지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영산 4경 죽산보에서는 사계절 피고 지는 꽃 축제를 즐길 수 있다. 나


영산강 8공구 석현교 상류


함평 2지구 생태하천


함평 1지구 생태하천




너른 나주평야를 휘감아 흐르는 영산강


나주 쌀을 형상화한 승촌보와 생태공원


자연을 벗 삼아 풍류를 즐겨보자!


자욱한 안개와 대나무 숲의 조화





수변 생태공간 조성 후 풍영정에서 내려다본 영산 7경 조감도(위).
현재 모습(오른쪽 사진)보다 녹지 벨트가 정비되고 보행로가 확보된다.

주영상테마파크와 이어지는 너른 들판인 다야들에는 너른 야생화 초지 군락지를 조성해 꽃 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또 강변에는 생태습지, 다야수변공원, 대지예술공원, 죽산보공원 등 테마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죽산보 인근과 둔치에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교육장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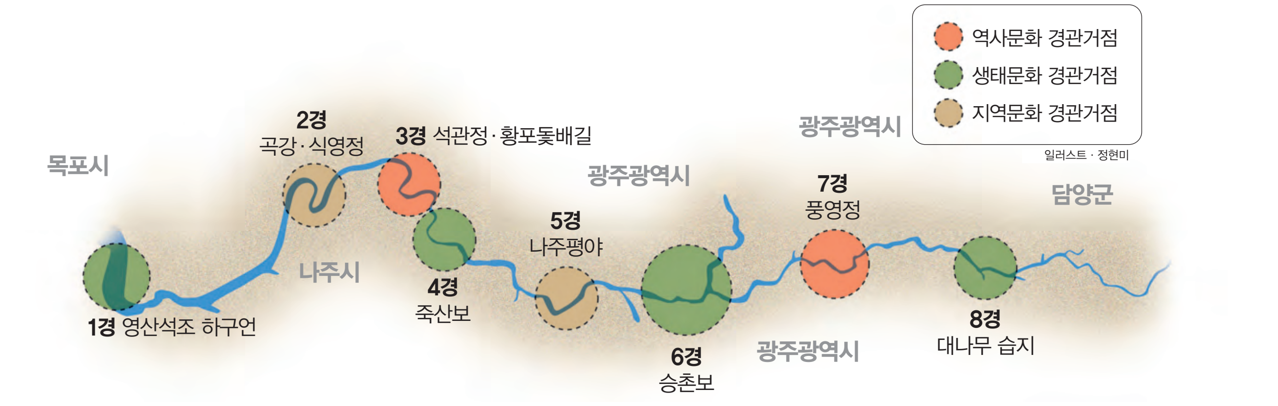
승촌보, 수질정화형 생태습지 조성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

추수철이면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나주평야가 영산 5경이다. 멀리 지평선을 배경으로 테마식물 군락지, 둔치 숲을 조성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며, 제방은 지금보다 경사를 완화해 녹지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예정이다. 또 나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문화시설도 건립한다.

영산 6경은 승촌보와 황룡강 합류부의 철새 도래지다. ‘생명의 씨알’로 불리는 나주 쌀알을 형상화한 승촌보는 광주광역시 승촌동과 전남 나주시 노안면의 경계에 있다. 승촌보 주변에는 수질정화형 생태습지를 조성해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산강과 황룡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형성된 하중도는 철새와 다양한 생태종이 출현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향후 왜가리, 중대백로뿐 아니라 설치류와 파충류도 살기 좋은 서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하천변 숲을 보존하되 초지 군락지, 둔치 숲, 수질정화 습지 등을 새로 만들거나 정비한다.

한편 조선의 문신 유사가 낙향해서 지은 호가정(浩歌亭)은 극락강과 황룡강에 인접한 노평산 기슭



영산강 지역명소 8경

구분	1경	2경	3경	4경	5경	6경	7경	8경
경관자원	하구언	곡강, 식영정	황포돛배, 석관정	죽산보, 장춘정	나주평야, 강변저류지	승촌보, 호가정	풍영정, 하중도	대나무 습지
특화 테마	석양	곡류부 특화	황포돛배길	다아들 사계절 야생화	너른 평원	철새 조망	역사문화	물안개
지자체	목포시	무안군,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담양군

에 있어 승촌보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명소가 될 전망이다.

영산 7경은 풍영정(風詠亭)에서 바라보는 절경이다. 선창산이 병풍처럼 둘러선 극락강변에 세워진 풍영정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조선의 명필 한석봉이 이 정자에 써서 건 편액 '제일호산(第一湖山)'처럼 가히 절경이다. 영산 7경은 풍영정 맞은편 둔치에 조성한 버드나무 숲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며 역사, 문화와 생태를 결합한 테마공간으로 조성된다.

7경은 역사·문화·생태 결합한 테마공간으로 조성

영산 8경의 테마는 거대한 대나무 습지다. 전남 담양군과 광주광역시의 경계에 있는 용산지구 주변에는 담양습지와 대나무 군락이 잘 보존돼 있다. 여기에 담양댐에서 피어오른 물안개가 어린 죽순에 이슬을 맺게 하는 죽림운무를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수변 생태공간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 숲과 연계하여 생태습지, 관찰데크, 산책로를 만들어 지역 관광명소로 특화할 예정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영산 1경, 2경, 6경, 8경의 경우 기존 생태 보전에 주력하되 생태적 단절 구간을 잇고, 수질정화 습지를 조성하는 등 순수 생태거점을 구축한다. 이와 달리 일반 생태거점인 3경, 4경, 5경, 7경은 황포돛배나 풍영정 등 옛 문화유산을 주축으로 주변을 생태적으로 완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편 영산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임재식 사무관은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9월 15일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으며, 9월 말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생태·문화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수변 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영산강 발원지 담양군 용소에서 승용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조선시대 대표 민간정원 명옥헌 원림.





금강 따라 백제의 문화魂이 흐른다

세계대백제전 개막… 금강·백마강서 최대 수상공연

충남 부여군과 공주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2010 세계대백제전'이 9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축제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1천4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백제 문화·예술의 혼을 되살린 세계대백제전은 금강을 중심으로 고대 동아시아 교류왕국으로 자리 잡았던 백제의 옛 모습을 재조명하게 되며 초대형 수상(水上)뮤지컬 '사마 이야기'와 '사비미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문화축제 '2010 세계대백제전'이 9월 17일 오후 공식 개막식을 갖고 백제의 세 번째 도읍지인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백제문화단지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백제문화단지 내 사비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 개막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이용우 부여군수, 이완구 전 충남지사, 캐슬린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 등 국내외 인사와 주민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장중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다시 살아난 아름다운 금강과 백제의 옛 유적, 문화가 잘 어우러져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찾

세계대백제전 행사 개요

주제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
주최 충남도, 공주시, 부여군, 세계대백제전추진위원회
기간 9월 18일~10월 17일(30일간)
장소 공주시와 부여군 일대(충남 16개 시군 참여)
개최 목적 백제의 문화와 역사 재조명을 통한 세계적 명품 축제 육성
내용 공연, 전시, 이벤트, 국제학술회의, 체험 프로그램
관람객 목표 2백60만명(외국인 20만명)
해외 참가국 세계역사도시연맹 회원도시 12개 포함 20여 개국



9월 17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백제문화단지 사비궁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식 행사.



이명박 대통령이 2010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방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고, 긴 역사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긴 역사 자랑할 수 있는 축제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어 "충남 도민, 공주와 부여의 주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그러한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역사를 되살리는 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희정 지사는 개회사에서 "문화와 교류를 통해 고대 아시아인의 삶과 마음을 이어줬던 백제의 역사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반드시 되살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계대백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2천 년 전통의 뼈대 있는 역사 위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고대 부여의 제천의식인 '영고'를 모티프로 사비왕국의 개장과 세계대백제전의 개막을 천신에게 고하며 나라의 영화와 백성의 평화를 기원하는 '사비왕궁 개문의식'이 진행돼 왕기철과 오정해, 국악 신동 송소희(덕산중), 기타 무용수 등 1백23명이 선보이는 부활의 대합창이 선보였다.

이어진 식후행사로 여성 8인조 국악그룹 '미지'가 '아리랑', 세계대백제전의 주제가 '대백제전의 숨결' 등을 축하공연으로 선보였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씨는 '백제복식 패션쇼'를 통해 고증을 거쳐 제작한 백제시대 귀족과 서민의 전통복장을 공개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1천4백 년 전 대백제의 부활'이란 주제로 부여군 백제문화단지 및 백마강변, 공주시 고마나루 및 공산성, 논산시 논산천 둔치 일대에서 10월 17일까지 열리는 세계대백제전에는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회 주관 22개, 공주시 주관 35개, 부여군 주관 35개 등 모두 92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충남도 240억원 투입… 세계의 축제로

세계대백제전은 소외돼온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충남도가 2백40억원을 들여 야심 차게 준비한 국내 최대 역사·문화축제다. 1955년 부여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성충, 흥수, 계백 등 3충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낙화암에서 백마강에 몸을 던진 백제 여인들의 넋을 위로하는

수륙제를 거행한 것을 시작으로 1980년대 이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 잡아온 기존의 백제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개막식을 비롯해 세계대백제전의 메인무대로 활용되는 백제문화단지는 1994년 10월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일원 3천2백76제곱미터의 터에 세워진 백제문화단지는 그동안 국비와 지방비 6천9백4억원이 투자됐다. 백제 왕궁인 사비궁, 백제의 대표적 사찰인 능사, 계층별 주거문화를 보여주는 생활문화마을, 백제 개국 초기의 궁성인 위례성, 백제의 대표적 고분을 보여주는 고분공원, 충남 도민의 기증으로 조성된 백제의 숲, 백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백제사 전문 박물관인 백제역사문화관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와 롯데 부여리조트가 단지 안에 위치해 역사·문화체험은 물론 교육과 즐길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세계대백제전 프로그램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금강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수상(水上)공연'이다. 공주 금강 고마나루와 부여 백마강의 낙화암 수상무대에서 펼쳐지는 '사마 이야기'와 '사비미르'는 국내 최대 규모인 데다 최장기간 공연되는 본격 수상공연으로 진작부터 관심을 모았다.

'사마 이야기' '사비미르' 15차례 수상공연

'사마 이야기'는 고마나루에서 전해 내려오는 금강 설화와 백제시대 영웅을 소재로 한 편의 판타지를 전달하는 공연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고마나루 수상공연장 무대에서 모두 15회 공연된다. 사마(무령왕)가 백제를 부흥시키고 해상왕국과 영토 확장을 이룬 이야기를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연출해 무용, 뮤지컬과 미디어아트, 워터스크린 등 각종 특수효과가 1시간 동안 환상

조영철 기자



'사마 이야기'가 공연될 공주 금강 고마나루 수상공연장. 첫 공연을 하루 앞둔 9월 17일 공연 준비가 한창이다. 네모 안 사진은 '사마 이야기'의 리허설 장면.

적으로 펼쳐진다.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 등 백제의 문화유산을 이미지화한 '사비미르'는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낙화암 수상공연장에서 15회 공연된다. '사비미르'는 백제의 정신과 예술혼으로 부활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비미르(사비의 용)를 중심으로 의자왕과 3천 궁녀 이야기에 얽힌 백제 패망의 역사적 사실을 현대적 해석으로 풀어낸다.

양대 수상공연 이외에도 볼 만한 프로그램들이 즐비하다.

'대백제 기마군단행렬'은 북부여에 뿌리를 둔 기마민족의 후예인 백제인의 웅대한 기상과 활달한 진취성을 보여준다. 신라 대야성 공격에 앞서 이뤄지는 출정식과 함께 전투마 1백23필의 지축을 흔드



조영철 기자



▲▲ 황산벌전투 재현.
▲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에서 선보인 사비왕궁 개문의식.

공주지역 주요 행사

구분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상설	10~20시	웅진성의 하루(관람, 체험)	고마나루 예술마당
	10~18시	세계역사도시관/세계 탈 전시 백제문화유산디지털상영관 백제문화예술체험관/백제토기마을 백제왕 나들이의상 체험, 전통떡 전시회 공주 옛 사진전/수촌리 발굴 사진전 등	
	10~23시	희망등(燈) 달기	공산성
	11~17시	수문병 교대식(주말)	
	10~18시	무령왕 이야기	무령왕릉
	10~18시	백제유물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10~18시	보부상 관련 전시회	충남역사박물관
	18~24시	백제등불 향연/루미나리에	금강, 금강교
	10~23시	부교 건너기 체험/수상카페 운영	
	10~18시	1박2일 백제문화체험(매주 토요일)	행사장 일원
병행	10~22시	공주 알밤축제(10.7~12)	연문광장
	19~22시	고마나루 향토연극제(9.26~10.5)	공산성
	10~18시	백제장사씨름대회(10.1~3)	금강 둔치
	16~22시	공주 신상옥청년영화제(10.10~14)	
	10~17시	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10.8~9)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10.10~11)	고마나루 야외무대
	10~18시	전국시조경창대회(10.12~13)	공주문화원
	10~18시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9.16~11.15)	연미산
	10~17시	백제하늘 항공축제(9.25~10.3)	정안천변

부여지역 주요 행사

구분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상설	10~18시	사비궁의 하루(관람, 체험) 사비궁 문화공연(하루 2회) 사비의 꽃(3D입체영화) 상영 i-백제관 운영(백제보드게임 등)	백제문화단지 사비궁
	10~21시	체험! 백제문화 속으로, 농특산물 판매장, 백제문화상품 판매장, 한우장터	구드래
	10~21시	백제무예 체험, 사비식물 특별전	왕흥사지 앞 행사장
	10~21시	부교 건너기 체험	백마강
	18~22시	백제왕궁 유등	
	10~23시	정림사지 돌담길 사진전	궁남로
	18~23시	백제의 빛 거리	
	10~18시	백제유물 특별전	국립부여박물관
병행	10~17시	웰빙건강체험 페스티벌(9.18~27)	구드래
	10~14시	부여 전국마라톤대회(10.9)	
	10~21시	굿뜨래 알밤축제(10.8~17)	
	09~18시	백제&아시아 국제미술전(10.1~8)	정림사지 전시관
	10~18시	향토작가 초대전 및 미협 회원전(10.9~17)	
	10~17시	제36회 내포제시조 경창대회(9.27~30)	내포제시조 전수회관

는 행진을 보여준다. 더불어 1백여 전투보병의 우렁찬 함성은 일대장관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기마진법, 마장마술, 의상, 기치(旗幟·깃발), 무술연기 등 스펙터클이 연출된다. 9월 19, 25일, 10월 2, 16일은 오후 2~4시, 10월 9일은 오후 1~3시. 부여군청~구드래 둔치 2.2킬로미터 구간에서 펼쳐진다.

'황산벌전투 재현'은 계백장군과 5천 결사대가 나당연합군과 벌이는 장엄하고 웅장한 백제의 마지막 황산벌전투를 생생하게 재현한다. 야간에 논산시 논산천 둔치에서 병사 1천명, 말 30필, 병장기, 의상, 세트, 조명, 음향, 특수효과 등으로 장대하게 연출할 예정. 공연은 10월 2, 3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다.

대백제 기마군단행렬 등 볼 만한 프로그램 가득

'세계역사도시전'에는 일본 나라(奈良)와 구마모토(熊本), 중국 뤄양(洛陽)과 양저우(揚州), 러시아 아무르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캄보디아 씨엠립, 베트남 후에, 터키 코니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아제르바이잔 셰이크, 파키스탄 카라치 등 12개 해외도시와 페루 쿠스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독일 쾰른 등 3개 문명도시의 역사와 문화 미래상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백제기악 탈 26점, 한국 탈 28점, 세계 탈 1백20점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내내 공주 고마나루 예술마당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실된 백제유물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는 '백제유물유적 복원전'과 전문배우를 기용해 백제시대 주요 사건을 배심원제 모의재판 형태로 진행하는 '백제사 모의재판' 등도 마련된다.

세계대백제전에 선보이는 92개 프로그램은 유·무료로 관람과 참여가 가능하다. 폐막식은 10월 17일 오후 5시 50분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예술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G

글 · 박경아 기자

세계대백제전추진위원회 ☎ 1666-2010 www.baekje.org



조영철 기자

세계대백제전 기간 중 매일 밤 공주 금강에서 펼쳐지는 백제등불 향연에 사용되는 백제인 형상 종이등.





윤덕용 민군 합동조사단장이 9월 13일 국방부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천안함, 北 어뢰 수중폭발로 침몰"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한·영판 2종 출간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이 제조해 사용 중인 CHT-02D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침몰했다는 결론이 담긴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들을 포함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와 입증자료 등을 수록한 상세 보고서다.

천안함은 북한이 제조해 사용하는 CHT-02D 어뢰의 수중폭발로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3D 구조해석 등 기본구조 안정성 검증 결과 천안함은 피격 등 비정상적 요인이 없는 한 구조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복원된 폐쇄회로TV(CCTV) 화면 분석 결과 정상임무 수행 중 갑작스런 폭발로 침몰한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9월 13일 공개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내 12개 민간기관 및 군 전문가 22명과 미국, 호주, 영국,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 24명 등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과학수사, 함정구조 및 관리, 폭발유형 분석, 정부 분석 등 4대 분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해왔다.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는 한글판과 영문판 2종으로 출간됐다. 한글판이 2백89쪽, 영문판이 3백13쪽이며 개요, 침몰요인 판단 결과, 분야별 세부분석 결과, 결론 그리고 부록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좌초나 기뢰 아닌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로 절단·침몰

보고서는 머리말에 이어 ▲우리나라의 윤덕용 합동조사단장과 박정이 1군사령관(육군대장) ▲토머스 에클스 미 해군

조영철 기자

소장(진급 예정) ▲인브니 파월 호주 해군 중령 ▲데이비드 멜리(영국) ▲에크니 위드홀름(스웨덴) 등 각국 조사팀 대표들이 보고서 내용에 동의한다고 쓴 자필서명을 싣고 있다.

보고서는 인양한 천안함의 함수, 함미 선체가 변형된 형태와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조사한 결과 '천안함은 북한이 만든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선체의 용골이 크게 변형된 점 ▲함정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함 안정기에 나타난 강력한 압력 흔적과 열 흔적이 없는 전선의 절단 ▲생존자들이 거의 동시에 들은 1, 2회의 폭발음과 백색 섬광 관측 ▲사고해역 주변에서의 지진파와 음파 관측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분석 ▲백령도 근해 조류 분석 ▲천안함의 연돌과 함수 절단면 등 36곳에서 검출된 폭약 성분 ▲지난 5월 15일 사고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추진동력장치 등을 들고 있다.

또 천안함 선체와 사고해역에서 발견한 북한제 어뢰 추진동력장치에 흡착된 비결정 산화알루미늄이 동일한 성분이란 기존 발표 내용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제조한 CHT-02D 어뢰에 천안함 피격"

보고서는 이러한 근거를 놓고 볼 때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했고, 폭발 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에서 좌현 3미터, 수심 6~9미터이며, 무기체계는 북한이 제조한 고성능폭약 2백50킬로그램 규모의 CHT-02D 어뢰"라고 확인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 잠수정이 천안함 공격 2, 3일 전 기

러시아 국영 TV

"천안함, 북한 어뢰에 피격" 보도



러시아 국영 TV가 최근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피격사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방부는 러시아 국영 1TV가 9월 10일 방영한 '김정일의 후계자가 공표될 수 있다'는 제목의 특집보도에서 "한국 정부에 따르면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의해 피격됐다. 강력한 폭발파가 천안함을 두 동강 냈으며 식당과 선실은 갈기갈기 쪼개졌고 폭발 당시 그곳에 있던 승조원들은 산화했다"고 전한 것으로 9월 14일 밝혔다.

러시아 국영 1TV는 이날 북한의 권력 승계와 관련한 보도에서 "한국은 북한의 변화(김정은 권력 승계)를 우려하는 시선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며 9월 9일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이 방송사 취재진이 두 동강 난 천안함 앞에서 우리 해군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도 방송했다. 방송은 이어 "북한은 (천안함과 관련한) 한국의 비난을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며 "특히 북한 정권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한국은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러시아 국영 1TV의 보도는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이런 보도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 내에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러시아 국영 1TV의 보도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고 보도한 러시아 언론 최초의 보도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사실대로 보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동아DB





조영철 기자

평택 해군 2함대에 있는 두 동강 난 천안함의 모습(왼쪽).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한글·영문판 2종과 만화로 된 〈강호룡 기자가 살펴본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

지를 이탈했다가 공격 2, 3일 후 기지로 복귀한 점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쌍끌이 어선의 특수 그물망으로 수거한 어뢰의 순회전 및 역회전 프로펠러, 추진모터 및 조종장치 등 어뢰 추진체 부품들이 북한의 수출용 어뢰 소개 자료에 있는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다시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과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해 천안함은 CHT-02D 어뢰의 수중폭발로 침몰했고,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에서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최종 촬영된 천안함 CCTV가 사고 당일 오후 9시 21분에 작동을 멈춘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좌초설을 부인했다. CCTV에는 안전당직자 순찰 모습, 후타실에서 체력단련 중인 장병의 모습이 확인됐다.

천안함 피격사건, 만화·인터넷으로도 진실 밝힌다

이 보고서는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생존 승조원 58명에게서 청취한 진술 중 기름 냄새가 많이 났다는 증언을 처음 공개했다. 함장 등 생존 승조원 중 26명은 '꽝! 꽈~앙' 하는 폭발음과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센티미터에서 1미터까지 떴다가 우현 쪽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으며 "기름 냄새가 났다"는 진술자가 41명이었다. 또 화염, 불꽃, 물기둥 목격자 및 화상환자는 없었고 50명이 골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은 이와 같은 천안함 생존병사들의 진술과 해안초소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이 섬광 불빛을 목격하고 소음을 들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어뢰의 수중폭발에 의한 버블효과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힌 이 보고서를 국회와 도서관,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시중 판매와 인터넷 무료 다운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간행물들은 무한 무료 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중 판매를 병행해 수요가 있는 보고서가 계속 제작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와 아울러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12개의 쟁점 및 의혹 사항을 대화식으로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강호룡 기자가 살펴본 천안함 피격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32쪽짜리 만화도 제작해 배포했다. 보고서와 만화는 천안함 홈페이지 '천안함 스토리'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천안함 스토리 ☎ 02-748-5525 www.cheonan46.go.kr/95

전쟁기념관 1층 특별전시관

천안함 피격사건 증거물 전시



9월 15일부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일반에게 공개된 천안함 피격사건 증거 자료 중 하나인 북한제 어뢰 추진동력장치.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알려주는 북한산 어뢰 추진동력장치 등 결정적 증거와 사진 등 각종 자료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1층 특별전시관에 비치돼 9월 15일부터 일반에게 공개됐다.

이번에 전시된 자료는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으로 결론 내린 북한산 어뢰(CHT-02D)의 추진 동력장치와 사고해역에서 건진 파편, 어뢰 폭발을 입증하는 폭약 성분 및 비결정질 산화알루미늄 분석 결과, 폭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동영상 등이다.

또 한쪽 벽에는 천안함 침몰 이후 함미와 함수 인양 과정, 쌍끌이 어선을 동원한 어뢰 추 동력장치 수색과 획득 등 조사 전 과정이 사진 등과 함께 상세히 설명돼 있고 다른 한쪽에는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숨진 46명의 승조원 사진이 걸려 있다.

전쟁기념관은 천안함 전시물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전시하고 이후 상설전시관으로 옮길 계획이다.

전쟁기념관 ☎ 02-709-3139 www.warmemo.or.kr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

“‘천안함 피격’… 이젠 근거 없는 의혹 사라지길”

“이번 보고서는 어떠한 은밀한 공격행위도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의 군측 조사단장을 맡았던 윤종성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9월 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발간이 북한에 대한 경고 의미와 더불어 “사건 조사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고 실체적 진실을 국민과 세계 각국에 알리며 학회 및 연구기관에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성 조사본부장은 이번 천안함 피격사건 보고서를 끝으로 근거 없는 의혹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했다.



조영철 기자

윤 본부장은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군함의 선체를 인양하고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 추진체를 수거했을 뿐 아니라 폭약 성분까지 검출해 조사한 사상 최초의 보고서라는 점에서 연구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본부장은 더이상 좌초설이나 기뢰설 등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결정적 증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천안함 선체와 어뢰 추진동력장치에서 발견된 동일 성분의 비결정 산화알루미늄 흡착물의 연결고리, 천안함과 어뢰 추진체의 녹슨 정도로 볼 때 북한의 소행은 명백합니다.”

“보고서 통해 천안함 피격사건 진실 정확히 이해해야”

그 밖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윤 본부장은 충분히 해명했다. 일각에서 북한군의 기습침투를 막기 위해 1975년 백령도 해역에 우리 해군이 설치한 기뢰 폭발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30여 년간 물속에 있던 기뢰의 폭발력은 천안함을 순간적으로 절단할 정도의 위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

또 천안함의 프로펠러 2개 중 유독 우측 프로펠러만 휜 것을 근거로 좌초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폭발이 천안함 좌현에서 발생하면서 선체가 우측으로 기울어 우측 프로펠러가 순간 압착돼 급정지한 반면 왼쪽 프로펠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정지해 변형이 적었다는 것이다.

어뢰 추진동력장치에서 발견된 ‘1번’ 글씨도 글씨 위에 녹이 슬어 있어 발견 후 우리 측이 썼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윤 본부장은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천안함을 둘러싸고 여전히 오해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평택 해군기지나 전쟁기념관 특별전시관을 방문해서 천안함과 북한제 CHT-02D 어뢰의 추진동력장치 실체를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 발간이 천안함의 진실을 바로 이해하고 정부의 발표를 더욱 신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대국민홍보와 설득,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박경아 기자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양조기술연구실

"우리 술 되살려 우리 농민 신명나게"

음주를 즐기는 한국인이지만 정작 우리 몸에 잘 맞는 전통주를 선호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 실제로 전통주의 맥(脈)은 희미해진 지 오래다. 이런 우리 술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양조기술에 관한 조상의 지혜를 찾아내는 의미만 지니는 건 아니다. 침체된 전통주 산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기도 하다.

짙푸른 주변 경치가 일품인 경기 수원시 국립농업과학원 내 한적한 연구센터. 여기서 새어나오는 발효 냄새가 코를 자극한다. 이곳을 찾은 지난 8월 24일, 온 세상을 씻어낼 듯한 장대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그 냄새의 파장은 오히려 더 강했다. 멥쌀과 찹쌀, 누룩이 어우러져 빚어낸 전통주의 '하모니'였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양조식품연구센터에선 1년 내내 다양한 전통주의 향이 발산되고 있다. 여기에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우리 술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추진계획 중 하나인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센터 1층에 들어서자 각종 전통주와 양조기기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센터 중앙 작업대 위엔 전통주 주원료인 멥쌀과 찹쌀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최지호 농업연구사는 이들이 어떻게 배합돼 전통주로 변신하는지를 소개하기 전에 작업대에 놓인 고문헌 한 권을 가리킨다. 〈산가요록(山家要錄)〉이라는 책이다.

"현존하는 조리서 중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조선시대 내의인 전순의(全循義)가 1449년 무렵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전통주를 복원 중입니다."

이 제조법을 바탕으로 연구원들은 조선시대 전통주를 현대화하는 기술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4종의 전통주를 복원했다. 2008년 '삼일주'와

"우리 손으로 전통주의 맥을 잇고 세계화를…."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이용과 양조기술연구실 연구원들이 2년간 피땀 흘려 복원해낸 전통주들을 놓고 포즈를 취했다. 왼쪽 아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지호 연구사, 한귀정 발효이용과장, 전진아 연구원, 공문희 연구원, 이승화 연구원, 권경희 연구원, 윤종호 연구원, 박장영 연구원, 박지혜 연구원, 최한석 연구원, 왕계군 박사, 최정실 연구원, 이복섭 연구원, 정석태 연구관.







◀ 발효이용과 최고령인 이복섭 연구원이 노련한 손놀림으로 당 측정 실험을 하고 있다.
▶ "조선 규방여인 같지 않나요?" 전진아 연구원이 누룩을 만들기 위해 통밀을 맷돌로 갈고 있다.

'황금주'를, 지난해엔 '녹파주'와 '아황주'를 복원한 것. 지금은 다채로운 맛과 향이 어우러진 '도화주' '석탄주' '벽향주' 등의 복원 기술이 개발 단계에 있다.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옛 문헌 그대로 술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최 연구사는 "옛 술을 답습하는 차원이 아니고 재탄생"이라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1년에 2종 정도만 복원되고 있다.

"옛 술을 그냥 똑같이 만들자면 한 달에 몇십 가지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주를 최대한 복원하면서 현대인이 즐겨 찾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려면 복잡한 이화학적 분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물론이고 제조할 때마다 당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누룩곰팡이가 내는 유기산 조성의 변화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되는지 등을 알기 위해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하죠."

2012년까지 전통주 15종 복원… 지역 명주 개발에도 박차

지난 2년간 복원된 4종의 전통주는 멥쌀과 찹쌀의 양에 변화를 줘 얻어냈다. 맛이 깔끔하고 푸른 빛깔이 난다는 이유에서 이름이 붙은 '녹파주'는 멥쌀과 찹쌀을 1 대 2 비율로 투입하고, 멥쌀 양의 2.5배에 이르는 물이 들어간다. 반대로 '아황주'는 원료 대비 75퍼센트의 물이 소요된다. 그래서 아황주는 색이 진하고 점성이 있다.

녹파주는 지난 5월 특허출원이 완료됐다. 그리고 실용화를 위해 6월 경남 함양의 전통주 명인에게 기술을 이전했다. 아황주도 7월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최 연구사는 특허 이야기가 나오자 "오늘이 아황주 특허 심사 날"이라며 설렌 표정을 지었다. 두 전통주의 특허출원,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숙제도 남아 있다.

"옛 전통주의 특색을 살리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고, 그 맛이 균일화되기 위한 조건을 찾을 때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전통주 표준화의 길은 참으로 험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12년까지 총 15종의 전통주를 복원할 계획이다. 한귀정 발효이용과장은 "전통주는 일반 주류와 달리 제조 시 1백 퍼센트 국산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주 산업은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새로운 녹색성장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징 있는 전통 막걸리 제조 위해 노력"

한 과장은 전통주 복원과 병행해 지역 특산명주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경북 문경에서 유명한 오미자 자체로는 지금까지 '당절임'은 가능했지만 술로 개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오미자에 발효 과정을 접목해 술을 제조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제한적으로 음식에 활용되고 있는 옻을 첨가한 술을 개발 중인데, 현재 옻의 무독화 안전성에 대한 임상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명주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가 전통주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2007년 6월 개소된 양조식품연구센터 연구원들의 하루도 무척 바빠졌다.

연구센터 2층에서는 한 '노신사'가 심각하게 누룩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발효이용과 최고령 연구원인 이복섭 연구원이다. 올해 69세다. 30년간 국내 한 주류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술이 좋아 다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연구원에겐 목표가 있다. 70세가 넘고 80세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전통주를 자기 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전통 막걸리는 현재의 것과는 다르게 달지 않습니다. 예전엔 막걸리를 마실 때 인상을 찡그리기까지 했어요. 실험을 몇 번 해봤는데 아직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특징 있는 전통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나이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때처럼 전통주와 막걸리 한잔이 생각나는 순간은 여태 없었던 것 같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빵만사' 회원들은 대부분 주부들이다. 내 가족의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빵을 만든다.

제빵왕 김탁구, 행복왕 '빵만사'

빵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빵만사'… 매주 두 번씩 제빵 봉사

빵 때문에 행복한 사람 중에는 '제빵왕 김탁구'만이 아니라 '빵만사(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 빵만사는 매주 두 번씩 빵을 만들어 홀몸노인, 노숙인 등에게 나눠준다. 어려운 이웃의 한 끼 식사가 될 빵이기에 정성을 가득 담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든다.

"잘 지냈어요?" "별일 없으시죠?"

지난 8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3층에 밝은 표정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이하 빵만사) 회원들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이곳에 모여 빵을 만든다. 여기서 만들어진 빵은 홀몸노인,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한부모가정 등에 전달한다.

"빵 만드는 법을 전혀 모르고 시작했지만 여기서 만든 빵은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빵으로 한 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정말 정성들여 만들고 있습니다."

4년째 봉사활동 중인 남금례 씨는 '귀한 빵'을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제빵 수업을 받다가 자원봉사를 신청한 이미희 씨도 이곳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정성으로 만든 빵 홀몸노인·노숙인 등에게 전달

"아이 보느라 바쁘고 힘들어도 봉사시간에는 빠지지 않아요. 만나는 분들이 좋기 때문에 점심 먹으러 온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올 때도 있죠. 다른 모임과 달리 이곳에서는 마음이 피로하지 않거든요. 봉사라기보다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날은 연희동,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 북아현동 등의 홀몸노인과 복지센터 아이들에게 보낼 식빵과 곰보빵

2백50인분을 만들었다. 반죽을 발효시키는 동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던 회원들은 이내 빵 만들기에 몰두했다.

빵만사 회원은 30대부터 70대까지의 주부들이 많다. 빵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일해온 사람들도 있고, 최근 구청 소식지를 통해 빵만사 활동을 접하고 참여한 이들도 있다. 빵 만드는 장소는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지만 서대문구 주민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빵만사는 서울에 4곳, 인천 2곳의 지부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에도 지부가 있다. 지난 5월에는 회원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곳 주민들에게 빵을 만들어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빵만사는 6년 전 몇몇 기독교인이 뜻을 모아 빵 굽는 기기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서울 창동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봉사에 참여했고, 이들이 만든 빵을 의정부나 포천 등지로 배달하며 빵 봉사의 문을 열었다.

처음엔 빵을 보낼 곳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1천원짜리 김밥을 먹으며 빵을 만들었다. 김밥값이 1천5백원으로 오르자 그 돈으로 밀가루를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밥을 줄이고 빵 개수를 늘렸다.

또 '작업장 가까운 곳으로 배달해야 따뜻한 빵을 먹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지역 지부들이 생겨났다. 봉사자들의 반찬거리 등을 도와주는 이들도 생겨났고 주변에서 조금씩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1백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자발적 봉사단체로 발전했다. 지원금은 모두 빵 재료비로 쓰인다. 또 봉사자들은 저마다 먹을거리를 들고 와서 일할 만큼 활동에 적극적이다.

현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3층 작업장은 서대문구청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다. 빵만사가 지하주차장을 빌려 빵을 만든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서대문구청 측이 지난해 10월 말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3층 공간을 제공했다.

"빵만사의 빵 봉사, 세계로 확대됐으면…"

하지만 빵만사는 아직도 공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려면 좀 더 넓은 장소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곳이라도 빵만사의 지부를 낸다고 하면 필요한 것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빵은 누구에게나 거부감이 없는 음식이라서 이런 봉사는 세계적으로 확대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순 대표는 빵만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길 꿈꾼다. 그는 그저 빵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에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빵만 나누는 게 아니라 행복한 인생도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실제로 회원들 중에는 봉사를 통해 얻은 에너지로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가정도 화목해진 경우가 많다.

"빵만사에서는 누군가 일을 혼자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합니다. 처음 하는 사람에게도 일감을 나눠주고 함께 일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해요. 빵을 잘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법을 익히는 거죠."

빵만사의 문은 빵으로 행복해질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열려 있다. 빵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제빵왕 김탁구'만이 아니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빵만사 문의 ☎ 010-3771-0875

'빵만사' 회원들은 지난 5월 캄보디아에 가서 빵을 만들었다(왼쪽). 빵을 받고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며 회원들은 보람을 느꼈다(오른쪽).





빵을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



일러스트 · 이우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문화바우처만큼'

공연 관람·도서 구입 비용 지원해주는 문화바우처 인기

"문화바우처가 아이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은 후원을 받아 공연을 보지만 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 문화바우처 회원들의 이야기다. 문화바우처는 단순히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주는 사업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를 통해 잠재능력을 기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1 저는 오페라, 뮤지컬 같은 공연을 좋아합니다. 2년 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기획한 브런치 오페라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공연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하지만 일반 공연은 가격이 워낙 비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문화바우처를 알게 돼 회원이 됐습니다. 얼마 전 대구 문화바우처에서 오페라 〈춘향전〉 티켓을 후원받았다며 가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후원을 받아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만 언젠가는 제가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김화엄(대구 서구 원대동)**

#2 우리 큰아이는 중1 여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미술학원 한번 보내지 못했지만 교내 미술대회는 물론이고 학교 대표로 전국 미술대회에 나가 상도 받았습니다. 큰아이의 꿈은 〈포켓몬스터〉나 〈도라에몽〉 같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서 공책에 캐릭터를 그리며 노력하는 딸에게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돈을 주고 극장에 가서 보고 오라고 해도 착한 큰아이는 동생들 빼고 혼자만 볼 수는 없다며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문화바우처에서 보내주는 영화표로 동생들과 신나게 집 근처 영화관을 찾습니다. 올 여름방학에도 애니메이션을 3편이나 보았답니다.

저희는 식구가 5명이다 보니 포인트로 영화만 신청하게 되더군요. 영화 몇 편이지만 저는 문화바우처가 우리 아이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바우처,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미(서울 성동구 성수2가)**

문화바우처 회원들이 보낸 감동 사연들이다.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리기 힘든 저소득층에게 문화 공연 관람 비용을 지원해주는 문화바우처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은 문화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영화,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각종 공연과 전시 관람 및 도서 구입 비용을 1년에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문화바우처 회원이 되면 자동으로 연간 5천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이 한도 내에서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관람하거나 책을 구입할 수 있다. 5천 포인트는 현금으로 5만원에 해당하며, 공연단체의 50퍼센트 할인을 감안하면 최대 10만원의 가치가 있다.

회원 가입은 문화바우처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시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인증이 이뤄지며, 정회원으로 인증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골라 예매할 수 있다.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 관람 등 1년에 5만원 한도 지원

예매한 공연이나 전시는 관람 당일 매표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표를 받아 관람하면 된다.

어린이나 장애인, 어르신 회원의 경우 본인 외에 동반자 1명에게 무료 포인트가 제공되며, 30인 이상 단체 회원 관람이나 이동거리가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차량, 식사 등 부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8월 31일까지 문화바우처 정회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회원)은 22만94명으로 지난해 말 16만5천1백40명에서 33퍼센트 늘었다. 또 지난해에는 연인원 29만6천2백79명이 문화바우처 혜택을 보았고, 올해는 8월까지 19만5천9백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문화바우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0억원이었던 문화바우처 예산은 올해 67억원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2백억원대를 넘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3일 제4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문화바우처 ☎ 1588-5683 www.문화바우처.kr

청각장애인 〈점프〉 공연 초대

"들리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9월 14일 서울 종로구의 〈점프〉 전용극장에는 공연을 보기 위해 각지에서 온 청각장애인 3백40여 명이 객석을 메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청각장애인을 〈점프〉 공연에 초대한 것. 〈점프〉는 대사가 없는 코믹 퍼포먼스여서 청각장애인들도 공연을 즐기는 데 문제가 없다. 무대 위 배우들이 맞고, 쓰러지고, 점프할 때마다 객석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래 문화바우처는 회원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공연, 전시 등을 개별적으로 예매해 관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과 어르신 등은 이용이 쉽지 않다. 실제로 장애인의 문화바우처 이용률은 2008년 기준으로 1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바우처 대상인 저소득층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해 별도의 기획공연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공연에는 실질적으로는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회원과 도서 및 산간지역 회원들도 포함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뮤지컬 초청공연을 기획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대사가 없는 코믹극 〈점프〉 공연을 마련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맹인안내견과 함께 입장하는 음악회를 오는 11월에 열 예정이며 12월에는 어르신을 위한 마당극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혜림 사무관은 "장애와 경제적, 심리적 요인으로 공연 관람을 어려워했던 문화소외계층이 적극적으로 문화를 누리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복지협의회

문화바우처 이용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기획공연도 있다. 대사가 없는 코믹 퍼포먼스 〈점프〉는 청각장애인들도 즐겁게 관람할 수 있다.

해파랑길(동해안 탐방로) 노선도



일러스트 · 최정미



동해안 688km 탐방로 '해파랑길'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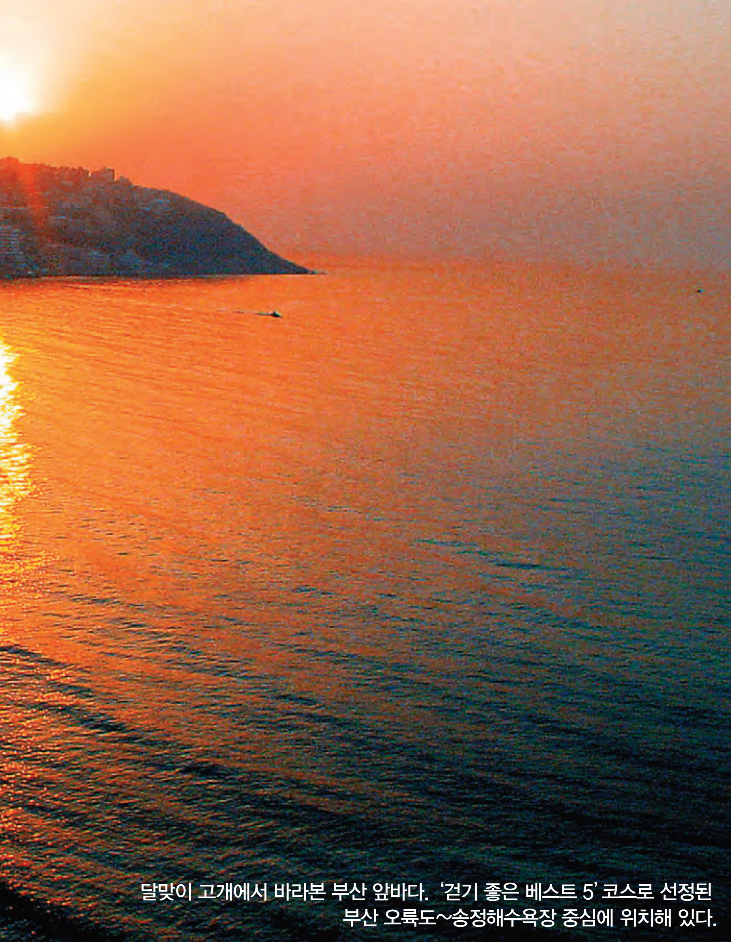
이야기가 있는 국내 최장거리 탐방로 2014년까지 조성

단순히 일정한 경로를 지나는 일주 개념의 여행은 사람들의 감성을 그다지 자극하지 못한다. 바다 보고 회 한 점 먹는 틀에 박힌 동해안 여행의 '공식'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15일 동해안 바다를 벗 삼아 걸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탐방로인 '해파랑길'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해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에서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까지 6백88킬로미터를 잇는 국내 최장 탐방로다. 동해안 해변길과 숲길, 마을길, 해안도로가 끊이지 않고 길게 선형으로 이어져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까지 1백70억원을 투입, 친환경적이면서 이야기가 있는 탐방로를 조성해 세계적인 '스토리텔링 로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파랑길 조성사업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 명의 연구진과 걷기 전문가, 도보여행 관련 단체 관계자, 소설가, 시인, 여행작가, 역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과 생태환경, 역사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탐방로의 명칭인 '해파랑'은 동해의 상징인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색인 '파랑'에 '~와 함께'라는 뜻의 조사 '랑'이 합쳐진 것이다. '떠오르는 해와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소리를 벗 삼아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으로 외부 공모를 통해 이름이 결정됐다.



동아DB

달맞이 고개에서 바라본 부산 앞바다. '걷기 좋은 베스트 5' 코스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송정해수욕장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해파랑길은 '동해의 아침' '화랑순례' '관동팔경' '통일기원' 의 4가지 큰 테마 길로 구성된다. 이 길은 다시 지역, 길이, 소테마, 핵심거점(항구, 해수욕장 등) 등에 따라 40개 세부 구간으로 나뉜다.

대표 테마 중 하나인 '화랑순례' 길(강원 강릉시~경북 경주시)은 1천5백 년 전 화랑도가 '호연지기(浩然之氣)' 를 기르기 위해 순례하던 코스다. 앞으로 이 길은 화랑도의 걷기 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젊은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청소년여행문화학교 등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한 코스가 될 전망이다.

'떠오르는 해' + '푸른 바다' 합성어… 4가지 테마 길

'관동팔경' 길(강원 고성군~경북 울진군)은 송강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關東別曲)' 등 기행문학의 배경지이면서 풍류가 어우러진 곳이다. 이곳에서는 각 지역 축제와 연계해 역사적 의미를 찾는 다양한 걷기 이벤트가 펼쳐진다. 고성과 양양 구간인 '통일기원' 길과 '동해의 아침' 길도 주변 지역 특유의 탐방 자원을 테마와 적절히 엮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0개 세부 구간을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로드' 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포구와 바닷가 마을의 숨은 이야기도 찾아낸다. 또한 길 이야기 공모전과 스토리텔링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동해안의 유·무형 유산과 정철, 수로부인, 처용, 박제상, 신라 화랑 등 역사인물을 길 위로 불러낼 계획이다.

해파랑길 구간 중 자연 친화의 감동이 더욱 벅차게 밀려오는 곳은 '걷기 좋은 베스트 5' 코스로 선정해 선도 길로 조성한다. 부산 오륙도~송정해수욕장 24킬로미터, 경북 경주 봉길해수욕장~포항 양포항 23킬로미터, 경북 영덕 강구항~고래불해수욕장 41킬로미터, 강원 강릉항~양양 광진리해수욕장 27킬로미터, 강원 고성 송지호~화진포 28킬로미터가 '베스트 5' 코스로 선정됐다.

오륙도~송정해수욕장 등 '걷기 좋은 베스트 5' 코스 선정

'오륙도~송정해수욕장' 코스는 동해의 남쪽 시작 구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를 '하루의 시작' 과 '나의 새로운 시작' 이라는 의미로 승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운대, 문탠로드, 달맞이 고개 등 해안 경관이 뛰어난 곳을 추천 탐방지역으로 배치했다.

'경주 봉길해수욕장과 포항 양포항' 코스는 기성세대라면 학창 시절 수학여행 코스로 한 번쯤 들러본 지역이다. 문무대왕릉과 감포항이 자리해 있고, 군 순찰로가 조성돼 있다. 문무왕 때부터 천 년을 이어온 '호국정신' 의 위대함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코스다.

해파랑길의 활성화를 위해 이 구간에 자리한 1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탐방로 사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도 창출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홍성운 사무관은 "해파랑길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환경 디자인 및 고유 BI(Brand Identity)를 별도로 개발하고 사진 공모전 개최, 가이드북 제작, 해파랑길 전용 도보여권과 인증서 발급 등을 추진하며, 모니터링 투어 등 다양한 걷기 이벤트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대강변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북 안동시 낙동강 인근의 '전통이 휘감아 흐르는 유교문화길', 전남 나주시 영산강 인근의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등도 '강변의 걷기 좋은 길' 2개 코스로 선정됐다. G

글 · 유재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 02-3704-9733

걷기 좋은 베스트 5코스

시 · 군	구간	길이	테마
부산	오륙도~송정해수욕장	24km	동해 아침
경북 경주, 포항	경주 봉길해수욕장~포항 양포항	23km	화랑, 〈삼국유사〉
경북 영덕	강구항~고래불해수욕장	41km	푸른 바다 (영덕 블루로드)
강원 강릉, 양양	강릉 강릉항~양양 광진리해수욕장	27km	석호
강원 고성	송지호 ~화진포	28km	통일 염원

연합



요미우리와는 사실상 결별에 직면한 이승엽. '몸값'이냐 '기회'냐, 국민타자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국민타자 자존심을 찾아라

2003년 12월 11일 서울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 기자들이 대거 몰려와 홈런 아시아신기록(56개)을 세운 이승엽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메이저리그 진출, 일본행, 삼성 잔류를 놓고 번민하던 이승엽이 거취를 최종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승엽은 전날 대리인이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와 협상을 벌여 2년간 5억엔의 조건으로 입단에 합의했다. 하지만 삼성 구단의 마지막 뒤집기 시도가 있었다. 삼성은 이승엽에게 무려 1백억원이 넘는 베팅을 했다. 지바 롯데의 조건을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승엽은 흔들렸고 잔류 결심으로 마음이 쏠렸다. 삼성 구단은 내심 잔류를 자신했다.

그러나 이승엽의 결심은 단 몇 분 만에 바뀌었다. 그것도 호텔 객실에서 기자회견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롯데와의 합의를 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롯데행을 선언했다. 팔짱을 끼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삼성 관계자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다.

눈물을 뿌리며 일본으로 진출한 이승엽은 첫해인 2004 시즌에는 부진했지만 이듬해 30홈런과 일본 시리즈 우승을 이끌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잔류 예상을 뒤집고 요미우리로 이적해 세상을 한 번 더 놀라게 했다. 2006 시즌에는 개막전부터 요미우리 71대 4번 타자로 발돋움하더니 41홈런, 1백8타점, 3할2푼3리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 덕분에 스토브리그에서는 4년 30억엔짜리 '잭팟'을 터뜨렸다. 실로 이승엽 야구인생의 절정기였다.

그러나 이후 4년 동안 이승엽은 숱한 위기를 겪는다. 왼쪽 무릎 수술과 왼손 엄지손가락 수술 후유증에 따른 부진으로 여러 차례 2군행의 수모를 겪었다. 4번 타자 자리도 내놓았다. 급기야 올해는 일본 진출 후 처음으로 개막을 후보선수로 맞이했다. 대타와 대수비가 임무였고 지난 6월엔 2군으로 내려갔다. 얼마 전 잠깐 1군에 올라오더니 사흘 만에 2군으로 재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면서 점점 요미우리와의 결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의 부진 이유를 꼽자면 무엇보다 부상이 컸다. 특히 일본 투수들의 집요한 몸 쪽 승부에 큰 '내상'을 입었다. 아울러 거포 알렉스 라미레스와 오가사와라 미치히로의 입단은 이승엽을 주변부로 밀려나게 했다.

이승엽을 뒤흔드는 구단 안팎의 분위기도 한몫했다. 와타나베 쓰네오 구단 회장이 직접 이승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다. 요미우리 'OB회' 내에서 이승엽 4번 타자 기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던 모양이다. 주변에서 끊임없는 관심을 쏟아주고 동기 부여를 해주는 인물도 없었다.

일본 내 이적… 메이저리그 진출… 국내 복귀… 향후 거취는?

이승엽의 거취를 놓고 요미우리 구단도 술렁거리고 있다. 이승엽을 비롯해 불필요한 전력을 정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엽의 연봉은 6억엔이지만 실제로는 9억엔이라는 설이 많다. 4년 동안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부진하자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요미우리 잔류가 어렵다면 향후 거취는 일본 내 타 구단 이적이 가장 현실적이다. 메이저리그 진출은 나이 때문에 쉽지 않고 친정팀 삼성은 국내 복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팀이 세대교체에 성공해 자리가 없을뿐더러 일본 이적 당시의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다.

일본 내 이적도 쉬운 것은 아니다. 몸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값을 1억엔까지 대폭 낮춰야 가능성이 있다. 눈물을 머금고 일본 진출을 선택했던 2003년 겨울을 생각한다면 몸값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장훈 씨가 거론했듯이 이승엽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30홈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승엽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대한민국 국민타자라는 자존심이 있다.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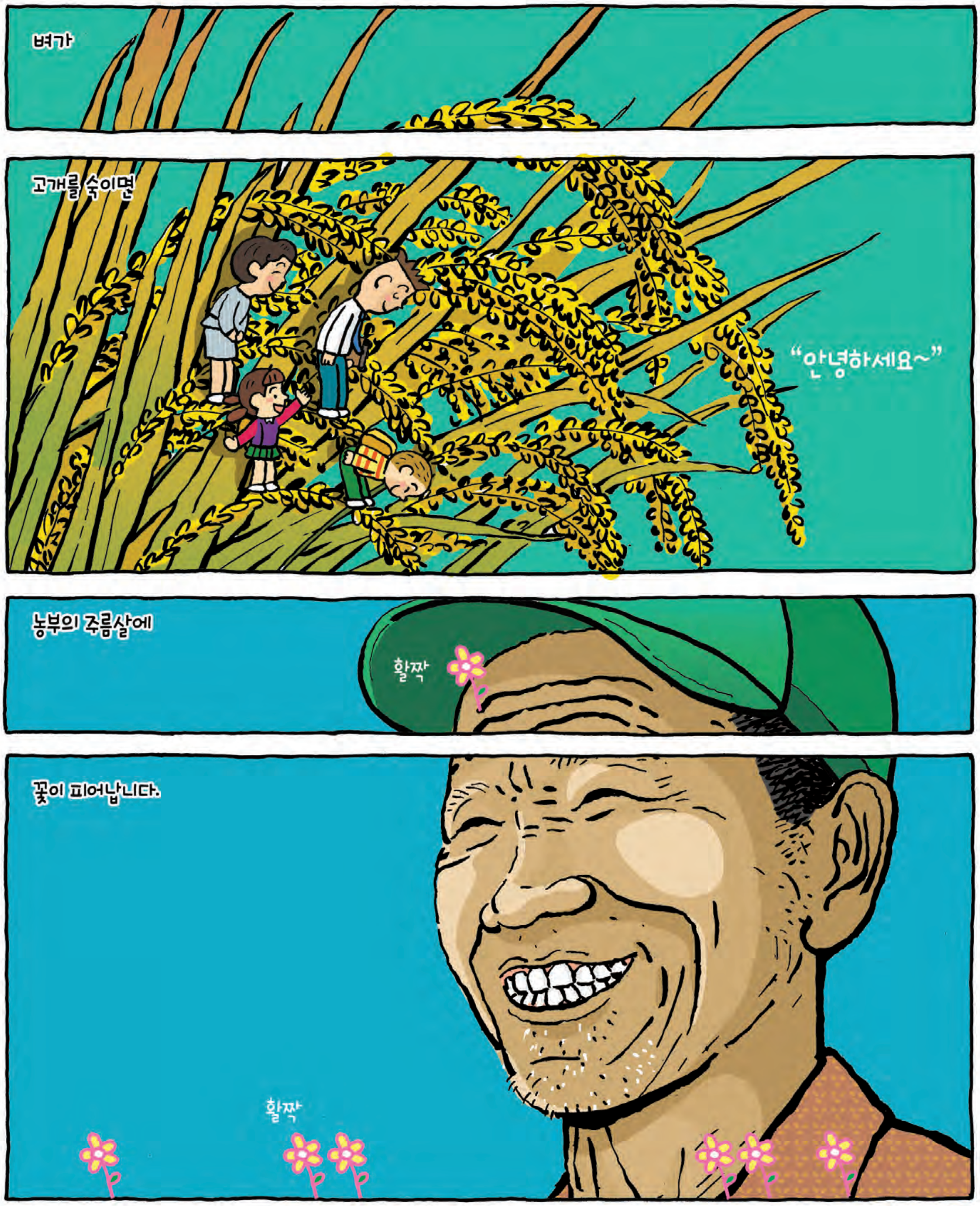


일러스트 · 문지혜

글 · 이선호(OSEN 야구전문기자)

안녕하세요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해보세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조영철 기자

김기택 시인이 추천하는 〈백석을 만나다〉

"읽으면 읽을수록 뜨거운 울림이 느껴져요"

시는 두뇌의 언어가 아니다. 인간의 몸으로 깨우쳐 쓴 오감(五感)의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머리로 읽으려고 하면 읽히지 않는다. 마음으로 부딪히고 깨달아야 가슴속 깊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좋은 시는 숱한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양한 독자들을 만나 소통한다.

하지만 시를 감상하는 것은 물론 좋은 시를 찾아 읽는다는 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김기택(53) 시인은 시와 독자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사무국이 선정한 문학집배원으로 매주 월요일 아침 e메일로 시 한 편을 보낸다. 짧은 감상평까지 곁들여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시에 해석이 있으면 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며 "이것은 결국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해 시 읽는 즐거움을 더 해준다"고 말했다.

김 시인은 〈사무원〉(1998) 〈껌〉(2009) 등 5권의 시집과 동화책을 펴냈다. 그런 그가 시 읽기 초보자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으로 시인 백석(1912~1995)의 시 전편 해설이 담긴 〈백석을 만나다〉를 추천했다. 백석은 2008년 한국시인협회가 선정한 '한국 현대시 10대 시인'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한국 현대시단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 하지만 분단에 의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1987년 해금된 이후 일제강점기 때 쓴 시들이 빛을 발하게 됐다.

김기택 시인은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백석의 시들엔 방언이 많아 읽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백석이 방언을 쓴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고향의 말들이 소멸되는 것을 우려해 일부러 쓴 것"이라며 "백석 시어들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정서들이 세월을 뛰어넘어 많은 독자들과 교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원 지음 / 태학사 펴냄 · 2만8천원

서울여대 국문과 이숭원 교수가 쓴 〈백석을 만나다〉는 당시 발표된 시들을 그대로 옮겨 낱말풀이를 해놓았고 작품에 대한 해설, 현대어 정본까지 총 4단계로 자세히 설명해놓아 백석의 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백석의 시는 해설하고 이해하면 그때부터 감상이 시작돼요. 말 속에 감춰진 정서가 풍부하기 때문에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음식처럼 뜨거운 울림이 느껴집니다."

김기택 시인은 "백석 시 전편 해설을 읽다 보면 백석의 삶과 가치관까지 알 수 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 〈국수〉를 천천히 낭송했다.

"백석은 만주를 떠돌며 외롭고 힘들게 살 때 고향에서 먹었던 국수 맛을 떠올렸어요. 육수를 만들기 위해 꿩을 잡으러 가고, 땅속에서 언 김장김치를 꺼내고, 국수틀에서 면발을 뽑고….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 속에서 먹었던 국수를 통해 유년의 아름답던 기억을 되살려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듯 백석의 시를 읽다 보면 삶의 고통을 순수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의 의지에 공감하게 될 겁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욕심을 버려라

글과 그림 · 최영순



마음속에 가득 찬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성글게 이은 지붕 사이로 비가 새듯이 화(禍)가 곧 우리를 뚫는다.
– <법구경>

2010 서울연극올림픽 개막작 〈바보각시〉

혼돈 속 자기해방과 구원을 노래하다



도시의 허섭스레기가 다 모인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에 포장마차를 끌고 바보각시가 당도한다. 이 포장마차에서는 온갖 구겨진 인간 군상이 모여 자신의 처지를 지껄여댄다. 현실 속에서 발붙이고 살아보려던 바보각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아이를 갖게 된다.

하지만 서로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책임을 미루고, 바보각시는 구원의 포장마차에서 목을 매 자살한다. 그들은 책임을 모면하려고 바보각시를 암매장하는데 흙 속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른다. 그가 죽은 곳에서 태어난 것은 화해와 희망의 상징인 '미륵'이다.

현실과 신화를 접목해 혼돈 속에서의 자기해방과 구원을 노래한 연극 〈바보각시〉가 9월 24일 개막하는 2010 서울연극올림픽의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서울연극올림픽은 연극올림픽 국제위원회가 주최하는 범국제적인 행사로, 이번에는 총 30개국에서 내놓은 80여 편의 공연을 선보인다.

〈바보각시〉의 연출은 이 시대 문화게릴라로 불리는 이윤택 영산대 문화산업대학장이 맡는다. 이 작품은 1993년 이 학장의 연출로 초연됐을 당시부터 파격적인 언어와 시적 구성으로 주목받았으며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이 학장은 "이번 공연에서는 초연 때와 달리 21세기의 도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동양적인 신화를 재생시켰다"며 "관객에게 연극이 인간의 삶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표현해내는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9월 24~28일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7시,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중고생 이상 관람가)
문의 02-763-1268 www.ntok.go.kr

•



••



● 오전의 국악 콘서트 〈다담〉

국립국악원이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여는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이달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는 무대로 꾸민다.
일시 9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관람료** 무료
문의 02-580-3300 www.gugak.go.kr

●● 발레 〈라이몬다〉

동양적인 스타일에 러시아 민속춤의 전통을 간직한, 클래식 발레의 거장 마리우스 프티파의 말년 작품.
일시 9월 25~30일 평일·토요일 오후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VIP석 12만원,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1만원, C석 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7-6181 www.sac.or.kr

ART & SCIENCE
2010 THE 1ST
KOREA MONEY FAIR

2010 제1회
대한민국 화폐 박람회

2010. 10. 1 ~ 3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홀

■ KOMSCO STORY

■ 동 · 서양 화폐 3000년 展
동 · 서양의 화폐를 연대별로 구분 전시

■ Money Mania Collection
희귀 화폐 전시

■ 화폐수집강의 화폐전문가 (사전접수에 한 함)

■ 화폐무료감정 개인소장품 (사전접수에 한 함)

■ 동전만들기 및 퍼가기 신나는 체험

■ 화폐경매

※ 사전접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주최 KOMSCO 한국조폐공사

후원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문의전화 : 머니페어 사무국 042-522-5607, 한국조폐공사 042-870-1225~7